

文學碩士 學位論文

新羅의 發展과 墓制의 變遷에 관한 研究
- 土壙木棺墓에서 積石木槨墓까지 -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崔 明 銖

2007年 12月

新羅의 發展과 墓制의 變遷에 관한 研究
－ 土壙木棺墓에서 積石木槨墓까지－

指導教授 강 봉 원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崔 明 銖

崔明銖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07年 12月

目 次

I. 序論	1
1. 研究史	1
2. 問題提起와 研究方法	2
II. 新羅의 成立과 發展	3
1. 三韓社會의 國의 概念	3
2. 斯盧國의 成立과 發展	5
3. 古代國家의 成立	10
III. 墓制의 變遷過程	13
1. 墓制의 時期別 概觀	13
2. 土壙木棺墓 段階	15
3. 土壙木槨墓 段階	21
4. 積石木槨墓 段階	26
IV 結論	32
參考文獻	45
Abstract	48

表 目 次

【표 1】 삼국사기 初期記錄에 보이는 斯盧國의 小國정복 현황	11
【표 2】 경주 일원 토광목관묘 유적 및 출토유물 현황	18
【표 3】 경주 일원 토광목곽묘 유적 및 출토유물 현황	24

圖 目 次

圖 1. 三韓 國의 구조 개념도	33
圖 2. 경주 입실리 및 평리 유적 출토유물	34
圖 3-1. 월성 죽동리 유물 출토유물	35
圖 3-2. 경주 죽동리 유적 출토유물	36
圖 4. 경주 안계리 유적 출토유물	37
圖 5. 경주 조양동 유적 5호 및 38호분 출토유물	38
圖 6. 경주 사라리 유적 130호분 출토유물	38
圖 7. 경주 황성동 유적 출토유물	39
圖 8. 경주 정래동 유적 출토유물	40
圖 9. 경주 황오동 유적 출토유물	41
圖 10. 경주 월성로 유적 나 -13호분 출토유물	42
圖 11. 영남지방 原三國時代 토기 編年表 1	43
圖 12. 영남지방 原三國時代 토기 編年表 2	43
圖 13. 영남지방 原三國時代 토기 編年表 2	44

I. 序 論

墳墓는 다른 고고학 자료에 비해 傳統性과 保守性이 강하기 때문에 時·空間的인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따라서 墳墓築造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속성과 의례적인 葬制를 포함하는 墓制에 대한 연구는 한 사회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더불어 분묘의 내부나 외부에는 인위적인 副葬행위에 의해서 많은 유물들이 埋納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생활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종합적 자료가 되고 있다. 古墳을 통해 墓制에 나타난 특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지배계급의 세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음은 물론 古墳의 위치, 구조, 埋葬방법, 副葬品 등을 통해 당시 사회의 사상, 문화, 예술 등의 여러 가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古墳이라는 것은 그저 죽은 사람의 무덤에 그치지 않고 고고학이나 역사학에 있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資料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에서 기원후 4세기까지 사료국의 성립에서부터 신라가 古代國家의 체계를 확립하기까지의 전개과정과 이 기간 동안 각 시대별 主墓制의 변천과정 및 특성을 살펴보고 신라의 國家成立 및 발전과정과 각 시대별 묘제는 어떻게 聯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묘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變遷되었으며 묘제가 변천한 時代的 배경 및 원인을 살펴보고 묘제의 구조 및 출토된 遺物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를 고찰해 보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라 하겠다.

1. 研究史 檢討

墓制變遷과 관련한 신라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文獻史學과 考古學에서 先學들의 다양한 연구가 있어 많은 研究成果가 축적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3가지 觀點으로 研究史를 분류하기로 하겠다.

첫 번째는 신라시대 墳墓에 대해 遺構의 構造를 분석하여 시기적 변천과정을 살펴되거나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한 編年의 확립, 墓制의 起源에 관한 연구 등 묘제 자체의 巨視的인 틀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¹⁾

두 번째는 墓制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단계적 墓制變遷에 따른 시대의 구분과 사회상을 밝히는 연구가 있어왔다. ²⁾

1) 강인구, 「신라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계통」, 『한국사론』 7, 1981

「신라고분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보정」, 『선사와 고대』, 한국고대학연구회, 1991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1

2) 강인구, 「사로육촌과 국가의 성립단계 試考」, 「신라묘제의 변천과 기년문제」, 『고고학으로 본 한국고대사』, 학연문화사, 1997

이현혜, 『삼한사회 형성과정 연구』, 일조각, 1984

이희준, 「초기 진. 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 변한사 연구』, 계명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4-5세기 신라의 고고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세 번째는 신라사회의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文獻資料에 의해 연구하면서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에 접목하려는 연구경향이다.³⁾

2. 問題提起와 연구방법

新羅의 墓制分野는 고고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한 成果를 쌓아왔다. 그러나 묘제의 구조적 樣式이나 출토유물에 의한 형식 분류나 編年 또는 起源問題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傳統性和 保守性이 강한 文化라고 할 수 있는 장례풍습의 특성에 의해 고고학에서 墳墓遺蹟만큼 당시의 사회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유적은 드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참고하여 신라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각 시기별 신라묘제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이 나타내는 時代背景을 연구하여 신라의 성립과 발전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묘제의 변천과정을 시대배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1장 序論에서는 본 論文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既存의 연구 성과를 敘述하였다.

2장 신라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첫째, 三韓社會의 地域 독립 정치체인 “國”의 개념을 성립시기, 공간적 범위, 인구, 사회발전 단계 및 지배계층의 개념, 국의 중심지와 境界, 취락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신라의 前단계인 斯盧國의 성립시기와 성립배경을 文獻記錄과 경주지역 출토 분묘유물 및 居住勢力의 변천과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斯盧國의 단계적 발전과정과 신라가 古代國家로 성립하는 과정을 문헌기록에 의한 周邊小國 정복과정 및 대내외적 관계변화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 묘제의 변천과정에서는 첫째, 墓制의 變遷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墳墓構造, 埋葬主體部, 출토유물 등에 의해 編年을 시도하였다.

둘째, 토광목관묘와 토광목곽묘에 대해 입지조건, 구조, 매장주체부 등에 의한 특징을 살펴보고 變遷段階와 편년, 주요유적 및 유물, 출현배경 및 시대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적석목곽묘의 起源 및 발생시기와 적석목곽묘 출현의 意味와 당시 신라사회의 背景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結論지어 敘述하였다.

「대구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보』 26, 2000
이청규, 박자연, 「사로국 형성 전후의 경주」, 『고문화』 55, 2000,
이청규, 「지배층무덤의 변천에 대하여 : 서기전 3세기 - 기원후 3세기」, 『인류학연구』 8,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998,
최병현, 「신라의 성장과 신라고분문화의 전개」, 『한국고대사 연구』 4, 지식산업사, 1991
3) 이종욱, 『신라국가 형성사 연구』, 일조각, 1982
선석열, 『신라국가 성립과정 연구』, 혜안, 2001
주보돈, 「진. 변한의 성립과 전개」, 『진. 변한사 연구』, 계명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II. 新羅의 成立과 發展

1. 三韓社會의 國의 개념

歷史記錄으로서 辰. 弁韓 혹은 영남지역의 國은 기원후 3세기 『三國志』魏書 東夷傳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바, 본고에서는 國의 성립시기, 공간적 범위, 인구수, 國의 사회발전 단계 및 支配階層의 概念, 國의 중심지와 境界, 聚落構造 등에 초점을 맞추어 三韓社會의 國에 대해 그 概念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성립시기를 볼 때 삼한 以前의 初期鐵器時代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假說도 제기되어 있으나⁴⁾, 취락지나 墳墓遺蹟을 通時的으로 비교하면 기원전 2세기말- 1세기 초에 이르러 비로소 墳墓가 처음으로 群을 이루고 造營되기 시작하며 또 같은 지점에 後續墓制가 계속 造營되는 유적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영남 지방에서 國은 전체적으로 대개 기원전 2세기말을 前後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에는 기초 정치체인 邑落이 아직 성립되지는 않고 읍락의 구성단위인 村落들이 성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初期鐵器時代에 이르러 비로소 國의 구성단위인 읍락이 성립하였으며 原三國시대의 開始期인 기원전 2세기말을 전후하여 그러한 읍락들이 지역별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國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⁵⁾ 다만 소백산맥 以西에서는 以東보다 빨라서 기원전 2세기 중에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空間的 範圍를 볼 때 초기 國의 범위를 대체로 직경 10KM 범위의 공간적 범위를 갖는다고 추정하고 國을 읍락수준의 범위로 보면서 그러한 國들이 기원후 3세기대 이후에 통합되어 通說에서 주장하는 國에 해당하는 規模가 된다고 주장하는 理論이 있다.⁶⁾ 그러나 三韓社會의 國의 범위에 대한 김정배의 주장을 살펴보면 國의 規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漢의 一個 縣정도의 범위이며 邑山지역 乾馬國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邑山군 4개면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⁷⁾ 그리고 斯盧六村의 위치비정에 대한 諸 理論들에 의해 삼한사회 初期의 斯盧國의 범위를 추정하면 대다수가 斯盧國의 범위를 현재의 경주시 管轄區域(구 경주군 포함) 一帶로 보고 있다.

셋째 國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三國地』魏書 東夷傳 韓條에 다음과 같은 國의 戶數가 보인다.

-
- 4) 이청규, 「동북아지역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1999, pp. 57 - 87
이청규, 「지배층무덤의 변천에 대하여 : 서기전 3세기 - 기원후 3세기」, 『인류학연구』 8,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998, pp. 125 - 134
이청규는 위 논문에서 영남을 제외한 한반도 남부의 國의 성립시기를 초기철기시대로 잡고 있다.
- 5) 이희준, 「대구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보』 26, 2000, pp. 79- 117
- 6) 이청규, 박자연, 「사로국 형성 전후의 경주」, 『고문화』 55, 2000, p. 32
- 7) 김정배,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pp. 223 -229

① 馬韓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② 弁辰韓 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위의 기록에서 보면 馬韓과 弁辰韓의 一國의 평균호수는 2,000戶가 된다. 一戶의 가족 수를 5인으로 기준을 삼을 때 인구는 10,000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君長社會(Chiefdom)의 인구를 10,000 - 12,000명 선으로 보고 있는 Baker, P.T와 Sanders, W.T의 이론과 一致하는 인원이다. 三韓社會의 國은 평균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는 사회로 추정되어진다.

넷째 國의 사회발전단계와 지배계층의 概念에 대해 살펴보면 삼한사회 國은 사회발전 단계에서 볼 때 國家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君長에 의해서 통솔되는 君長社會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蘇塗라는 특수한 지역과 天君이라는 제사장이 공존하는 祭政이 분리된 사회였다. 이들 君長들은 문헌에 長帥, 渠帥, 主帥, 臣智 등으로 表記되는 통치자와 같은 성격의 존재이다.

①馬韓在西....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삼국지』 위서 東夷傳 韓條)

②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삼국지』 위서 동이전 弁辰條)

삼한사회 國은 이미 정치, 경제적으로 우세한 지배자가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로 추정되며 國을 구성하는 각 읍락은 공동의 경제영역을 소유하면서 독자적인 교역을 수행하기도 하는 개별적인 경제단위이며 血緣意識을 바탕으로 성립된 단위정치집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 國을 성립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읍락이 國邑이며 이 國邑에는 그 지배자로서 主帥(長帥)가 있었고 읍락에는 渠帥가 있었다. 이중 主帥가 國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며 臣智, 險側, 邑借 등은 이 主帥에 대한 칭호이다.

大國과 小國은 규모의 차이에 의해 主帥의 稱號에 구별이 있었는데 臣智는 大國의 主帥의 稱號이고 힘의 우열에 따라 險側, 邑借 등을 칭하였다. 國邑主帥는 비록 國을 구성한 여러 읍락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하고 일정한 지배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라 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記事에서 보듯이 小國성립의 初期에는 그 힘이 邑落의 渠帥들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읍락의 渠帥들은 國邑主帥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니며 읍락집단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國邑에 대해 도전세력으로 존재함에 따라 國邑主帥가 邑落勢力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까지에는 상당한 발전과정이 전제되었다. 이러한 國의 지배구조는 기원후 2세기경에 이르러 초기의 지배권력의 限界를 극복하고 단일한 정치집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발달된 정치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다섯째 國을 구성하고 있는 聚落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삼한사회 國은 國邑을 중심으로 다수의 읍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國단계의 기초 정치체라 할 수 있는 읍락의 취락분포 定型은 하나의 中心聚落 아래에 다수의 大小聚落들이 분산적으로 분포한 형태로 볼 수 있다.⁸⁾삼한사회 國의 읍락의 취락분포 定型은 수 개의

小村(hamlet)이 하나의 村(village)을 중심으로 결집한 단위들이 몇 개가 모인 群集的 형태이며 國은 複數의 그러한 읍락이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圖1 참조)⁹⁾

즉 三韓社會의 國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볼 때 기원전 2세기말에서 1세기 초에 성립되었으며 漢 郡縣의 一個 縣정도의 규모와 평균 인구 10,000명 정도의 社會集團이며 국가단계 이전의 祭政이 분리된 君長社會(Chiefdom)로¹⁰⁾ 君長이 거주하는 國邑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독립적인 읍락들로 구성된 형태로 볼 수 있다.

2. 斯盧國의 成立과 發展

1) 斯盧國의 成立

경주 인근의 각 지역에는 일부의 지석묘와 무문토기, 마제석기 등의 유적 유물들이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어 기원전 수세기간에 걸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집단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청동기문화단계에 이르러 이 일대에는 수많은 小規模 단위집단들이 성립되어 있었고 기원전 3-2세기경에는 경주지역에 청동기를 소유한 보다 발달된 정치집단들이 대두한 것으로 보여 진다. 기원전 3-2세기경 경주일대에 존재하고 있던 이러한 정치집단의 지배자들이 지석묘 혹은 석관묘계통의 先住集團이었는지 또는 土壙墓系 주민이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나 이들은 이미 지석묘를 축조하던 소규모 단위집단의 지배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지석묘유적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경주지방의 지석묘 주인공들도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 청동기유물의 주인공들은 전통적인 지석묘 세력보다는 좀 더 확대된 支配基盤을 가지면서 보다 발달된 支配權力을 이루어나가던 集團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세력기반이나 支配領域은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판단될 문제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靑銅遺物에 의하면 기원전 3-2세기경의 경주지역에는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小集團들을 전체적으로 統轄하는 확대된 支配勢力이 대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당시의 경주 일원에는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多數의 정치집단들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개별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대등한 관계의 세력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아직 國으로서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 前段階인 집단촌락으로서 어느 정도의 질

8) 이희준, 앞의 논문, 2002, p. 151

9) 圖 1은 이희준, 앞의 논문, 2002, p. 152 三韓의 國의 구조 개념도를 참조하였다.

10) 김정배는 『한국 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에서 군장사회로

이종욱은 『신라국가 형성사 연구』, 일조각, 1982에서 추장사회로

최몽룡은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1985에서 족장사회로 명칭 하였다.

서와 통제를 가진 部族社會라고 추측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회는 前時代의 지식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보다는 質的인 면에서나 量的인 면에서 더 확대되고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회는 몇 개의 씨족이 연합된 고도의 部族社會 규모로 추정된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여 想定되는 이러한 정치집단들은 유물의 편년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문헌기록에 나오는 斯盧六村의 존재와 聯關하여 설명할 수 있다. 斯盧六村을 고고학 유물의 編年에 의해 기원전 3-2세기경의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경주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다수의 정치집단들로 이해한다면 당시의 六村의 중심지는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는 경주 일원의 각 지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분지내의 청동기유물의 출토, 탑동을 중심으로 한 南山 서북지역, 입실리, 구정동, 죽동리, 평리지역의 경주 동남 지역, 경주 북부지역인 안계리의 일괄 청동기유물 출토, 경주 남쪽 대곡리의 반구대유적을 형성한 지역 등은 집단촌락의 존재를 뒷받침하여 준다. 이들 유물발견 지역들이 각기 斯盧六村의 하나라고 말하기는 다소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이들 지역을 토대로 하여 六村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말 - 1세기에 이르면 경주지방에서 발견되는 금속제 유물들은 그 성격이나 수량 면에서 이전 단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금속제 유물을 大別할 경우 기원전 1세기 이후의 철기를 반출하는 단계의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단계 유물군의 특징으로는 첫째, 유물의 구성 면에서 鐵器比重의 增大, 細紋鏡, 청동방울과 같은 儀式用具의 감소 내지는 消滅, 車輿具 부속의 첨가, 儀仗具化한 銅鉞, 銅戈의 출현과 같은 諸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 遺物의 문화계통상 이들은 衛滿朝鮮系 유민과 문화의 流入을 직,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배자 한 개인이 소유하는 청동기, 鐵器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보다 확대된 정치기반과 지배권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문헌상으로 보면 기원전 1세기 중반경 다수의 경주지역 先住勢力 集團, 즉 六村세력들이 혁거세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정치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¹⁾

六村들을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 存立하고 있었던 靑銅器文化단계 이래의 독립된 정치집단들로 간주한다면 혁거세의 대두는 이러한 多數의 독자적인 세력 집단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정치단위체를 形成해 나가던 과정으로 설명될 수 다. 그리고 혁거세의 대두는 이 단계에 이르러 경주지역에도 六村長 勢力, 즉 多數의 청동기시대의 小規模 지배자들을 전체적으로 統轄하는 새로운 지배권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地緣的인 結束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확대된 지배집단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성장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은 고고학 유물상에서 나타나는 기원전 1세기 이래의 획기적

11) 註 7) 참조

인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경주 입실리를 비롯한 이 시기의 분묘 遺蹟群에서는 細紋鏡, 청동기 방울(竿頭鈴)같은 청동기문화단계의 標識的인 遺物들이 蓋弓帽, 鐵斧, 鐵劍, 馬鐸과 같은 위만조선계 토광묘의 典型的인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六村계통의 先住 支配集團들이 衛滿朝鮮系 遺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입실리 등 유적에서 출토되는 특이하고 독자적인 형태의 銅鉞 등의 유물의 특성을 들어 서북지역 유이민 세력의 전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혁거세라는 새로운 지배자의 대두와 六村勢力的 統合過程은 고고학상 衛滿朝鮮系 遺民과 문화의 流入을 배경으로 청동기문화단계의 토착 小集團들이 成長統合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文獻上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타나는 혁거세의 대두와 六村의 통합은 새로운 정치집단의 대두와 지배세력의 構成過程으로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辰韓 斯盧國의 성립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斯盧國의 성립과 발전과정은 이러한 先住 정치집단들의 상호 연합, 대립, 확장 작용의 결과이며, 또한 위만조선계 철기문화와 주민의 流入,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 사회적인 변화과정을 감안할 때 斯盧國의 성립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반- 중반으로 추정되어 진다.

斯盧國은 청동기 사용을 오랫동안 거친 기반위에서 본격적인 철기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여지며 토광목관묘와 多量的 鐵器, 瓦質土器, 漢代靑銅鏡을 基盤으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斯盧國의 發展

辰韓地域 諸小國의 성장과정을 우선 개괄적으로 서술 後 斯盧國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小國成立 이후 기원후 1세기까지 邑落집단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國邑에 대해 도전세력으로 존재함에 따라 國邑主帥가 읍락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까지에는 상당한 발전과정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漢의 발달된 冶鐵기술과 製鋼技術의 확산과 철기의 광범위한 普及으로 생산력이 증대되고 각 小國간에 交易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財富의 축적과 지배 권력의 강화과정이 加速化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小國의 내적인 성장은 小國간의 武力對立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狀況들은 國邑主帥(君長)의 정치권력 強化에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배경아래에서 國邑과 邑落간에 혼인을 통한 세력제후가 거듭되면서 읍락의 渠帥들이 國邑의 지배세력으로 흡수되고 전체적으로 國邑의 지배기반이 확대되면서 지배집단의 成員이 증가하고 새로운 結束基盤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三韓의 小國들은 기원후 2세기경에 이르면서 初期의 지배권력의 限界를 극복하

고 단일한 정치집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발달된 政治機能을 발휘하게 된다. 즉 각 읍락의 渠帥에게 분산적으로 소유되고 있었던 重要 통치기능이 國邑 지배집단에게 持續적으로 集中, 掌握됨으로서 증대된 통치업무를 效率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租稅徵收과 관리, 군사지휘권 등의 핵심적인 통치기능이 專門化되고 통치기구와 조직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원후 2세기 이래 각 小國간의 무력대립에 의해 세력격차가 深化되고 기원전 1세기 이래 衛滿朝鮮系 遺民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주중심의 세력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완만하고 대등한 상태의 결속관계가 점차 정치, 경제적인 支配服屬關係로 轉換되어 12국으로 구성되는 辰韓 小國聯盟體가 확립된다.¹²⁾ 이상과 같이 보면 2세기 후반부터 三韓社會는 큰 변화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층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진 聯盟體로 발전하고, 또 小國 자체 내부의 통합력도 상당히 進展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斯盧國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辰韓 12小國 중의 한나라였으며 斯盧國의 성장에 관련하여 우선 그 나라의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라 하였는데 斯盧國이 후일 辰韓의 맹주국이 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4-5천호의 범주에 해당하는 大國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斯盧國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先進文物을 지녔던 流移民 勢力이 정착하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陸路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利點과 교통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내외 交易의 優位를 점함으로서 다른 小國들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斯盧國과 小國들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들과 共存하면서 小國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辰韓의 小國社會를 대표하였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의 다음 기록은 辰韓 小國社會에서 斯盧國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이 서로 境界를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이를 판결하여 달라고 청하였으나.....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왕 23년조)

② 瓠公을 馬韓으로 파견하여 수교하였는데, 馬韓王이 瓠公에게 말하였다. 辰弁韓은 우리의 屬國이면서도 近年에 貢物을 바치지 않고 있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왕 38년條)

①의 경우는 辰韓小國들의 분쟁에 斯盧國이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기록이다. 당시에 小國들의 영토분쟁에 斯盧國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되어 진다.

②는 辰韓과 馬韓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기록으로서 斯盧國이 대외적으로 辰韓 小國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에 斯盧國과 辰韓의 小國들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斯盧國은 여러 小國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租貢을 받

12) 이현혜, 『삼한사회 형성과정 연구』, 일조각, 1984, pp. 201- 203

13) 이종욱, 『신라국가 형성사 연구』, 1982, p. 26

이와 관련하여 이종욱은 사로국의 중심이었던 사로옥촌의 酋長社會시대 末期 인구를 3천호에 1만 5천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아들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⁴⁾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파사왕 8년條에서 斯盧國의 통치범위를 서쪽으로 백제, 남쪽으로 가야라 한 사실은 斯盧國이 辰韓小國의 맹주국으로서 상당한 범위까지 그 세력이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斯盧國은 辰韓地域 내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辰韓 小國들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창구역할을 담당하면서 낙랑 등의 발달된 문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小國에 비해 빠른 발전을 보이면서 맹주국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 진다.

斯盧國은 당시 여러 小國에서 생산되는 鐵이나 布등을 모아서 낙랑 등에 직접 교역하거나 馬韓을 이용하여 중국 등과 교역하였으며 또한 낙랑 등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을 각 小國에 분배하는 일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삼국지 위서동이전 韓條나, 후한서 韓條에서 보면 辰, 弁韓에서 철이 생산되었고, 이를 馬韓, 濊, 倭, 낙랑, 대방등에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고대사회에서 철은 우세한 무기를 量産하게 하였고 철제농기구를 제작하게 됨으로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斯盧國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여 진다.

기원후 1세기경까지 斯盧國은 여러 읍락집단이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집단은 하나의 단위 정치체를 구성한 獨自性이 강한 집단들로서 國邑의 중심 세력이 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으나 2세기경에는 國邑과 읍락 지배세력간의 혼인 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결합되어 國邑勢力이 일반 읍락의 세력집단을 통제해 나갔다. 이러한 통치권력의 강화는 곧 辰韓 諸 小國을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의 養成으로 이어져 小國征服 活動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아울러 중심 지배집단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특정집단이 통치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¹⁵⁾ 이러한 세력통합을 통해 斯盧國은 『晉書』 東夷傳에 보이듯이 3세기 후반에 이르러 西晉 등과 대외교섭을 추진하는 辰韓地域의 중심세력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기원후 2세기 이래 三韓社會에 생산력이 증대하고 社會分化가 진전되면서 小國들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대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통해서 斯盧國이 주변의 여러 小國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 <표 1>¹⁶⁾로 정리해 볼 수 있다.

斯盧國은 2세기 중반부터 辰韓 小國聯盟의 맹주국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였으며 이때부터 辰韓小國들을 긴장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 斯盧國의 주변 小國병합은 2세기말에서 3세기 중엽에 본격화 하였는데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를 통한 다음 사료들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벌휴왕 2년」 2월에 波珍濱 仇道와 一吉濱 仇須兮를 左右軍主로 삼아 召文國

14) 이종욱, 위의 책, 1982, p. 79

15) 선석열, 『신라국가 성립과정 연구』, 2001, 혜안, p. 226

16) <표 1>은 선석열, 위의 책, 2001, p. 129의 표를 참조하였다.

을 정벌하였다. (기원후 185년)

② 「조분왕 2년」 7월에 伊淦 于老를 대장군으로 삼아 甘文國을 討平하고 그 지방을 郡으로 하였다. (기원후 231년)

③ 「조분왕 7년」 2월에 骨伐國王 阿音夫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그 지방을 郡으로 하였다. (기원후 236년)

斯盧國의 小國 支配形態는 각 小國의 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을 郡으로 삼아서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또는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배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斯盧國에 대해서 附庸의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斯盧國은 辰韓의 각 小國들로부터 貢物을 징수하고 이를 점차 정기적인 租稅賦課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3세기 중엽 경에는 정치, 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적 交易關係를 토대로 성립된 小國사이의 완만한 결합관계가 정치적 지배, 복속관계로 轉換되고 있었으며 斯盧國은 被征服 小國의 대외교섭 내지는 交易過程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서 辰韓 小國聯盟體의 맹주로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辰韓의 각 小國들은 斯盧國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들 小國은 상당기간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辰韓 小國聯盟體의 각 小國들은 斯盧國으로부터 貢物을 징수당하거나 物資交易, 대외교섭상에 일정한 제재를 받고 있었으나 기원후 4세기 이후 高塚古墳을 축조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지배기반을 유지한 채 지배 권력을 집중 강화시키며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한편 斯盧國은 복속된 小國의 지배층을 강제로 경주에 이주시켜 斯盧國의 지배력을 강화시켰으며, 征服 小國地域의 지배기반을 분산시켜 斯盧國에 반발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켰다. 斯盧國은 服屬小國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우월관계를 아직 복속되지 않은 小國에 대해서도 행사하고 이에 반발하는 小國은 군사적으로 응징하여 辰韓地域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3세기말경에 낙동강 以東地域의 辰韓小國 영토를 거의 평정한 斯盧國은 4세기 중엽의 내물왕대부터 小國단계에서 古代國家 단계로 이행하여 新羅王國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3. 古代國家의 成立

단위정치체인 小國들이 斯盧國을 중심으로 병합되면서 新羅라는 개별정치체가 성립하게 되는데 斯盧國이 辰韓 諸 小國에 대한 정복을 달성한 4세기 중엽 이후의 변화된 辰韓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史料를 통해 볼 수 있다.

①春夏에 가뭄이 있어 年事가 나쁘고 기근이 있었다. 王이 衛頭를 보내어 符秦(前秦)에 들어가 方物을 전하므로 符堅이 衛頭에게 묻기를 “그대의 말에 海東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함이나” 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마치 중국의 時代變革. 名號 改易과 같은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예와 같을 수 있리요”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26년條)

이 기록은 신라의 중국의 前秦(351- 394) 交渉記事로 新羅가 급성장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신라는 4세기 중엽까지 辰韓 諸 小國을 정복하여 4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 존재가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 의해 인식된 존재는 그저 단순히 그 前에 斯盧國으로 존재했었고 辰韓지역의 대표자라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이 時期가 중국에서 變革의 시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辰韓지역에서도 그에 相應하는 변혁이 있었고 그것은 斯盧國의 新羅國家로의 등장이었다.

신라는 이사금기 후반기에 이르러 활발히 領域을 擴張해 나갔고, 영토 확장 사업에 일정한 寄與를 하던 김씨족은 고구려의 지원에 힘입어 석씨족을 물리치고 王權을 장악할 수 있었다. 王權을 強化하기 위해 내물마립간대에는 여러 상서로운 모습의 강조를 통해 王權의 提高를 도모하는가 하면¹⁷⁾, 실성을 고구려에 質子로

< 표 1> 삼국사기 初期記錄에 보이는 斯盧國의 小國征服

國 名	記錄 年代	位置比定	典 據	복속형태
于尸山國	脫解이사금대 (57- 80)	울산	列傳4, 居道傳	정복
居柒山國	脫解이사금대 (57 -80)	동래	上同	정복
屈阿火村	婆娑이사금대(80-112)	울산	地理1, 臨關郡	정복
音汁伐國	婆娑이사금 23년 (102)	안강	本紀1	정복
悉直谷國	婆娑이사금 23년 (102)	삼척	本紀1	내항
押督國	①婆娑이사금 23년(102)	경산	本紀1	내항
	②祗摩이사금대	경산	地理1, 章山郡	정복
比只國	婆娑이사금 29년 (108)	창녕	本紀1	정복
多伐國	婆娑이사금 29년 (108)	합천	本紀1	정복
草八國	婆娑이사금 29년 (108)	초계	本紀1	정복
召文國	伐休이사금 2년 (185)	의성	本紀2	정복
骨浦國	奈解이사금 14년 (209)	마산	本紀2	격퇴
柒浦國	上同	창원	上同	격퇴
古自國	上同	고성	上同	격퇴
史勿國	上同	사천	上同	격퇴
保羅國	上同	나주	上同	격퇴
甘文國	助賁이사금 2년 (231)	개령	本紀2	정복
骨伐國	助賁이사금 7년 (236)	영천	本紀2	내항
沙梁伐國	沾解이사금대 (247-261)	상주	列傳5, 昔于老傳	정복
古寧加耶國	沾解이사금대 (247-261)	함창	地理1, 尙州	정복
伊西國	儒禮이사금대(297년이전)	청도	本紀2	정복
何瑟羅	?	강릉	地理2, 溟洲	후속

(선석열, 『신라국가 성립과정연구』, 2001, 해안, p.129의 표를 참조)

보내는 등 정치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내물마립간 이후 辰韓地域 小國

17) 3년 2월에 왕이 친히 始祖廟에 제사하였는데, 廟上에는 慈雲이 서리고 廟庭에는 神雀이 모여 들었다.

7년 4월에 始祖廟庭의 나무들이 가지를連하였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奈勿이사금條)

의 지배층을 서라벌로 이주시켜 以前의 斯盧國지역을 신라국가의 王京으로 삼아 이를 지배집단의 居住地域으로 하였다. 이를 이은 눌지마립간은 중앙의 群臣과 지방의 “國中豪俠” 18)을 會集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歷代王陵을 수리하여 王權을 강화하였다. 19) 이것이 자비, 소지마립간대에는 築城과 王京整備²⁰⁾, 神宮의 설치²¹⁾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對民編制에 의한 力役體系를 수립하였고 王京에 六部體制를 완성하고 市場을 개설하였다. 지증마립간대에는 州郡制를 시행하여 중앙의 지방통치체제를 강화하고 王이라는 稱號를 정식으로 사용하여 古代國家의 기반을 다졌다.

이와 같이 麻立干期の 新羅는 정치적인 成長過程을 겪으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마련하고 그 위에 王權의 強化를 도모할 수 있었다. 물론 절대적인 王權의 強化모습은 법흥왕대 율령의 반포 및 制度整備, 불교수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김씨족에 의한 왕권의 확립과 지방제도 마련의 바탕에 의한 古代國家로의 성립은 麻立干期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8) 至訥祗王... 十年乙丑 王召集群臣及國中豪俠 親賜御宴 進酒三行 (『삼국유사』 권1, 기이2, 내물왕)

19) 19년 2월에 歷代의 園陵을 수리하였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訥祗麻立干條)

20) 11년 9월에 何瑟羅사람으로서 15세 이상된 자를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

13년에 三年山城을 쌓았다. 14년 2월에 芑老城을 쌓았다.

17년에 一牟, 沙尸, 廣石, 沓達, 仇禮, 坐羅 등 성을 쌓았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慈悲麻立干條)

7년 2월에 구벌성을 쌓았다.

8년 정월에 伊滄 實竹을 拜하여 장군으로 삼고, 一善 땅의 丁夫 3,000명을 징발하여 三年, 屈山의 두 성을 고쳐 쌓았다.

9년 7월에 月城을 수축하였다. 10년 7월에 刀那城을 쌓았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炤知麻立干條)

21) 9년 2월에 奈乙에 神宮을 지으니, 奈乙은 시조가 처음 탄생한 곳이었다.

17년 정월에 왕이 친히 神宮에 제사하였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炤知麻立干條)

III. 墓制의 變遷過程

1. 墓制의 時期別 概觀

신라에서 各 時期別로 주류를 이룬 墓制는 일반적으로 토광목관묘, 토광목곽묘, 적석목곽묘, 횡혈식 석실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횡혈식석실분을 제외한 토광목관묘 및 토광목곽묘와 적석목곽묘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경주지역의 墳墓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토광묘는 크게 土壙木棺墓 단계에서 시작되어 土壙木槨墓 단계로 轉換되었다. 이들 墓制는 서로 시기적으로 繼承의 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共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토광묘를 土壙의 구조,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구분한 최병현의 形式 分類²²⁾를 따르면 경주지역 토광목관묘를 3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土壙안에 木棺만 안치된 순수 토광목관묘 시기와 木槨안에 木棺이 밀착 설치된 I型 토광목곽묘(목관묘 단계)시기로 나누어지고 순수 토광목관묘는 또 부장유물에 의해 청동기 위주의 遺物과 무문토기가 副葬된 시기와 철기위주의 遺物과 古式 瓦質土器가 副葬된 시기로 구분되어진다.²³⁾ 그리고 토광목곽묘는 墓壙의 구조와 매장주체부에 의해 長方形 墓壙期와 細長形 墓壙 또는 主副槨期의 2시기로 나누어진다.²⁴⁾

경주에서 토광묘는 기원전 2세기말 - 1세기 초에 토광목관묘로 출발하여 기원 후 1세기 후반기경에 I형 토광목곽묘(목관묘단계)로 전환되었고, 기원 후 2세기 후반에 토광목곽묘가 출현하여 적석목곽묘가 등장한 뒤인 4세기 중엽까지 공존하여 출현하고 있다. 이상 설명해 온 내용을 종합하면 토광묘의 각 단계별 年代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²⁵⁾

22) 최병현, 『신라고분 연구』, 1991, 일지사, pp. 82 - 90

23) 목관묘는 출토유물의 조합상, 토광의 구조, 적석시설의 유무, 腰坑의 유무, 목관의 재료(판재, 통나무), 부장의 위치 등에 의해 시기를 구분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청규, 「세형동검시기 영남지역 묘제」, 『세형동검의 제문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 5회 합동고고학회, 2002

위 논문에서 이청규는 묘광의 형태변화, 출토유물의 조합상, 부장위치 등을 분석하여 목관묘를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김용성, 「토기에 의한 대구. 경산지역 고대분묘의 편년」, 『한국 고고학보』 35, 1996, pp. 82-88
위 논문에서 김용성은 출토토기의 형식분류에 의해 목관묘를 3단계로 시기 구분하였다.

이성주, 「진. 변한지역 분묘출토 1- 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보』 24, 1999, p. 15
위 논문에서 이성주는 출토토기의 형식분류와 배열을 종합 목관묘를 7단계로 시기 구분하였다.

24) 이성주, 위의 논문, 1999, p. 38에서 출토토기의 형식분류와 배열을 종합 목곽묘를 7단계로 시기 구분하였다.

25) 안재호, 「변.진한의 목관묘문화」, 『동아세아의 고고학』, 2000

김영민, 「영남지역 삼한후기 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청규, 박자연, 「사료국 형성전후의 경주」, 『고문화』 55, 2000

위의 논문에서 목관묘단계를 기원전 1세기 전반에서 2세기 후반까지로, 목곽묘단계를 2세기 후반에서 3세기말로 보고 있다.

◎ 土壙木棺墓 단계

1기 (무문토기, 청동기 위주 부장기) : 기원전 2세기말 - 1세기 초

2기 (고식와질토기, 철기위주 부장기) : 기원전 1세기 후반 - 기원후 1세기 전반

3기 (I 형 토광목곽묘) : 기원후 1세기 후반 - 2세기 전반

◎ 土壙木槨墓 단계

1기 (장방형墓壙期) : 기원후 2세기 후반

2-1기 (細長形墓壙 - 主副槨期) : 기원후 3세기 - 4세기 초

2-2기 (적석목곽묘 공존기) : 기원후 4세기 중엽

토광묘 시기의 경주지역 墳墓는 墓制의 특징이나 출토유물 등을 볼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타 영남지역 토광묘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크게 보아 전체적으로 同質性을 갖고 있으며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4세기 중엽 경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토광목곽묘와 시기적으로 共存하면서 출현한 적석목곽묘는 이후 경주지역의 主墓制로 발전하게 되며 6세기 중반까지 持續하였다. 적석목곽묘의 定義와 類型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²⁶⁾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木槨上部에 積石施設이 남아있는 墳墓만을 적석목곽묘의 범위에 포함하여 황남동 109호분 3.4곽부터 보문동 부부총의 夫塚까지를 적석목곽묘의 시기로 編年한다.

경주지역에서 적석목곽묘가 主墓制로 등장하는 同時期에 경주를 제외한 영남지방 일원은 토광목곽묘가 계속되다가 대부분 豎穴式石槨墓로 轉換되어 수혈식석곽묘가 主墓制로 되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토광목곽묘가 더 오랫동안 계속되기도 하여 경주와는 다른 狀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평행하는 시기의 영남일원의 主墓制는 수혈식석곽묘로 볼 수 있다.

영남지방의 수혈식석곽묘는 토광목곽묘에서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자체에서 변화 발전된 것으로 그 轉換過程이 점진적이고 지방마다 轉換時期에 차이가 있으며 構造도 地方的 특징들을 갖는 여러 가지 地方形式이 생겨났다. 영남지방에서 토광목곽묘가 수혈식석곽묘로 轉換하는 시기는 경주에서 적석목곽묘가 출현한 이후로서 실질적인 대형 수혈식석곽묘(高塚)의 發生時期는 4세기 중엽 및 후반기로 볼 수 있다.

26) 이회준, 「경주 월성로 가- 13호 적석목곽묘에 대하여」, 『碩學 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1996, pp. 299 - 306

이회준은 위 논문에서 상부적석이 없는 것들도 신라 적석목곽묘의 범주에 포함됨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범주의 묘제를 사방적석식 적석목곽묘와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묘,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로 구분하고 각각은 순차적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성주, 「울산 중산리유적 발굴을 통하여 본 신라묘제의 기원」, 『제 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1992

이성주는 위 논문에서 중산리유적의 목곽묘를 토광목곽묘 - 목곽위석묘 - 목곽적석분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순서로 변화되어 왔음을 논증하였고 목곽위석묘와 목곽적석분을 분명한 하나의 묘제로 이해하였다.

2. 土壙木棺墓 단계

1) 토광목관묘의 특징

가. 立地條件

경주일원에서 조사된 토광묘들의 立地를 보면 토광목관묘 단계와 토광목곽묘 단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토광목관묘 단계의 立地는 입실리 유적부터 조양동 유적까지 모두가 평야와 접하는 구릉경사면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토광목관묘단계의 입지는 경주 일원에만 해당되는 현상은 아니고 영천 어은동 유적, 대구 만촌동 유적, 평리동 유적, 의창 다호리 유적 등 영남지방 전체에서 공통되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토광목관묘에 해당하는 서북지방의 움무덤들과도 공통되는 현상이다.²⁷⁾ 그리고 토광목관묘 단계의 분포상태는 다시 2단계로 나뉘어 진다. 입실리 유적, 구정동 유적 등 아직 청동기가 부장품의 주류를 이루는 단계에서는 토광묘가 개별적으로 분포되고 있지만, 부장품의 주류가 철기로 바뀌는 단계에 와서는 경주 조양동 유적, 사라리 유적, 덕천리 유적, 의창 다호리 유적 등에서도 같이 집단적인 분포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상도 서북지역과 공통되어진다.

나. 構造

목관묘는 묘광을 파고 墓鑿壁 안에 약간 여유를 두고 시신을 안치한 木棺을 갖춘 墳墓로 이러한 목관묘는 목관의 외부와 상부를 돌로서 쌓거나 채운 것과 흙만으로 채운 것이 있으며 묘광 위에 목관 같은 것으로 두껍을 덮고 그 위에 야트막하게 封土를 축조한 구조이다. 목관의 부재는 통나무와 판재로 구분되며 목관의 아래에는 부장품을 넣기 위한 腰坑을 설치한 것도 발견되고 있다.

경주 일원에서는 물론 영남지방 전체에서 토광묘가 묘광 위에 봉토가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예는 없지만 토광목관묘 단계에서부터 봉토가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조양동유적의 토광목관묘의 경우 묘광 내부의 埋土 단면이 U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묘광 어깨선에 부장된 토기의 파편이 묘광바닥 床面까지 흘러내려와 있는 경우를 볼 때 축조 당시 묘광 위에 나무 같은 것으로 두껍을 덮고 그 위에 어느 정도 규모의 봉토를 쌓았던 것으로 墓壙 위의 나무 두껍이 썩으면서 봉토가 점차 墓壙 内部로 함몰되어 내려왔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²⁸⁾

다. 埋葬 主體部

27) 최병현, 앞의 책, 1991, p. 59

28) 최병현, 앞의 책, 1991, p. 64

토광목관묘 단계의 매장 주체부는 묘광과 묘광바닥에 안치한 목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토광목관묘는 묘광의 평면이 말각 장방형 또는 장방형에 가깝고 대부분의 묘광의 크기가 길이 2 - 3M, 너비 0.75 - 1.5M이고, 깊이는 1M 이상이다. 묘광 바닥에는 墓壙壁과의 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두고 가운데에 埋葬 主體施設을 놓고 묘광벽과 매장주체시설 사이의 공간을 점토로 메우고 있다. 이러한 경주 지역 토광목관묘의 埋葬 主體部 構造는 대체로 서북지방의 순수 움무덤과 같은 구조로 보여 진다.²⁹⁾

한편 약간 시기가 내려오는 토광목관묘는 묘광의 길이가 4M, 너비가 1.5 - 2M로 확대되고 길이는 0.75M 정도로 얕아지는데 이 단계에는 순수 토광목관묘 외에 목곽과 목관이 밀착되어 배치된 I형 목곽묘(목관묘 단계)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I형 토광목곽묘는 목곽이 목관의 外皮와 같은 존재로 서북지방의 나무곽 무덤과 같은 구조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경주지역 토광목관묘는 일부 통나무관도 보여 지나 점토 채움의 형태 (뒷채움 점토)로 보아 목관의 부재가 대부분 板材 또는 角材관으로 보여 진다.

라. 葬法

경주 일원의 토광묘에서는 목관묘 단계와 목곽묘 단계를 불문하고 하나의 묘광 내에는 1인만 伸展葬으로 매장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영남지역 전체의 토광묘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묘광의 長軸은 동서방향(조양동 유적), 북서방향(강변로 유적), 북동방향(사라리 및 덕천리 유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變遷段階와 編年

움무덤 또는 토광묘로 불리는 細形銅劍期の 墳墓形式은 木棺의 존재여부나 그 형태, 그리고 봉분의 樣相에 대해서도 그리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三韓時代 초기의 木棺墓로 발전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지만 墳墓의 기본적인 속성들이 細形銅劍期の 그것을 繼承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토광묘의 起源에 근거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주 일원의 토광목관묘를 構造的 變遷에 따라 구분하면 순수 토광목관묘 시기와 I형 토광목곽묘(목관

29) 최병현, 앞의 책, 1991, p. 65

이성주,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 울산중산리 유적과 다운동 유적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 14 1997, pp. 10 - 11

이성주는 위 논문에서 영남지방 목관묘의 기원은 세형동검기의 서북지역의 움무덤의 전통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묘 단계)시기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순수 토광목관묘 시기는 부장유물에 의해 당시 時期를 나눌 수 있는데 즉 副葬土器가 아직 청동기시대 이래의 무문토기인 時期와 무문토기가 사라지고 古式 瓦質土器로 바뀐 時期이다. 대체로 무문토기 副葬期에는 同伴遺物이 청동기 위주이고 고식 와질토기 副葬期로 오면서 철기위주로 바뀌어 진다. 그리고 토광목관묘 분포상태에 있어서도 대체로 무문토기 부장기는 個別墳墓이고 고식 와질토기 부장기로 오면서 분묘의 集團造營을 이루고 있다. 무문토기가 반출되는 순수 土壙木棺墓 時期를 토광목관묘 단계 1기로 보면 경주 일원 토광목관묘 단계 1기의 유적에서는 출토유물로 볼 때 입실리 유적을 상대적으로 가장 앞선 시기로 볼 수 있다.

청동유물에 대한 이청규의 연구논문을 참조할 때³⁰⁾ 입실리 유적의 年代는 기원전 2세기말에서 기원전 1세기 초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를 경주 일원의 토광목관묘의 開始時期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장토기에서 고식와질토기 및 무문토기가 공존하는 조양동 5호분과 38호분의 출토유물로 토광목관묘 단계 2기의 연대를 추정하면 同시기인 창원 다호리 1호분이 출토유물인 청동기와 星雲鏡, 五銖錢 등에 의하여 기원전 1세기 후반기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토광목관묘 단계 2기는 같은 시기의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고식 와질토기의 始作 初期인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³¹⁾

I 형 토광목관묘가 출현하는 토광목관묘 단계 3기의 年代는 대표유적인 조양동 60호분 출토 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최종규의 소위 「와질토기」 편년에 의해 고식 와질토기 후기인 Ⅲ기에 해당하고 고식와질토기 Ⅲ기의 年代는 기원후 100년에서 150년으로 設定되고 있다. 그리고 조양동 60호분과 同시기의 같은 매장주체시설을 가진 김해 양동리 7호분의 일괄 출토유물에 대한 岡内三眞의 ³²⁾ 1세기 중 -후반 編年 등을 고려할 때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전반으로 設定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출토유물의 鐵器 구성에서 철검, 鐵鉞, 철촉 등의 철제무기가 多量追加되고 있는데 국가권력의 武力 독점적 측면에서 한 단계의 進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遺蹟地 및 出土遺物

30) 이청규, 「세형동검의 형식분류 및 그 변천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13, 1982

이청규는 위 논문에서 세형동검의 사용 시기를 5단계로 나누고 입실리 유적 세형동검을 4기로 추정하여 기원전 100 -50년으로 추정하였다.

31) 高久健二, 「樂浪郡と 변. 진한 の 묘제」, 『고고학으로 본 변. 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 九州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2000

高久健二는 위 논문에서 조양동 5호분은 서기전 1세기 전엽, 조양동 38호와 다호리 1호분은 서기전 1세기 중. 후엽으로 편년하였다.

이희준, 앞의 논문,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02, p. 131

위 논문에서 이희준은 高久健二와 같은 연대를 設定하였다.

32) 岡内三眞, 「김해 양동리 출토유물について」, 『史林』 56권 3호, 1973

경주일원 土壙木棺墓 단계의 시기별 主要 遺蹟地와 이에 따른 出土遺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리고 주요 유적지의 출토유물을 첨부도면으로 수록한다.
 <圖 2 참조 - 입실리 및 평리 출토유물> , <圖 3 참조 - 죽동리 출토유물>, <圖 4 참조 - 안계리 출토유물>,<圖 5 참조 - 조양동 5호 및 38호분 출토유물>,<圖 6 참조 - 사라리 130호분 출토유물>

<표2> 경주 일원 토광목관묘 유적 및 출토유물

時期 區分	遺 蹟 地	出土遺物		
		土 器	청동기 및 철기	기 타
1 단계 (기원전 2세기말 - 기원전 1세기 초)	入室里 유적	적색鉢形土器 우각과수형 발형토기	세형동검,銅鉞,銅戈 細紋鏡,竿頭鈴,銅鐸 鐵劍片, 鐵斧	
	九政里 유적		細形銅劍片, 銅鉞片 銅戈,銅製鈴具,銅鐸 鐵製環頭刀, 鐵斧, 板狀鐵斧, 鐵鎌片	磨製石斧
	坪里 유적		세형동검,동모,동과	
	竹東里 유적		세형동검,동모,동과 銅製十字形劍把 頭飾 銅製 마구리 장식 동탁, 竿頭鈴, 銅製革金具	
	安溪里 유적		銅鉞, 笠形銅器,	
2 단계 (기원전 1세기 후반 - 기원후 1세기 전반)	조양동 5호분	흑색磨研土器長頸壺 무문토기小形甕	靑銅多紐無紋鏡, 靑銅製馬鐸, 鐵戈, 鑄造鐵斧, 철검,	漆塗木製丸棒
	조양동 38호분	短頸球形壺 組合牛角形把手附長頸壺 주머니壺, 短頸壺, 小形甕	靑銅製 前漢鏡 철검, 판상철부	
	덕천리 124호분		馬形帶鉤	유리제환옥, 유리수정제 경식
	덕천리 127호분		虎形帶鉤	유리제환옥, 유리수정제 경식
3 단계 (기원후 1세기 후반 -2세기 전반)	조양동 60호분	조합우각형과수부장경호 주머니壺	馬形帶鉤, 청동環	
	사라리 130호분	조합우각형과수부호 短頸壺, 주머니壺 有蓋軟質甕	세형동검, 劍把鐵劍 靑銅柄部裝飾小刀 虎形帶鉤, 銅飽, 방제경, 有紋銅器	유리수정제 경식

4) 出現背景 및 時代狀況

경주지역 初期 토광목관묘의 構造 및 출토 청동기의 繼承性 등으로 볼 때 경주 지역 토광목관묘는 직접적으로 서북지방 순수 움무덤의 南下, 즉 위만조선계 流移民들의 南下에 의하여 서북지방의 순수 움무덤과 같은 구조의 토광목관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 되어진다. 현재까지 경주 일원에서 最古의 토광묘인 입실리 유적은 그 年代가 기원전 2세기말 - 1세기 초로서 서북지방에 漢四郡이 설치될 무렵으로 판단되지만, 그 副葬遺物은 아직 토기가 무문토기이고 세형동검, 銅戈, 銅鉞, 細紋鏡 등이 鐵斧와 공반하여 고식 와질토기와 鐵短劍의 발생 이전 단계로 되어 있다. 입실리 유적은 遺構의 발견 없이 유물만 출토되었지만 출토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경주에서 토광목관묘를 축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낙랑군이 設置되기 以前에 서북지방에서 南下를 開始한 유이민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³⁾ 즉 그들은 위만조선 후기의 혼란을 피하여 기원전 2세기말 - 1세기 초에 내려온 衛滿朝鮮系 遺民들이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입실리 유적 등에서 출토 되는 특이하고 독자적인 형태의 銅鉞 등의 유물의 특성을 들어 서북지역 유이민 세력의 전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여 想定되는 이러한 정치집단들은 유물의 編年上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文獻記錄에 나오는 斯盧六村의 존재와 聯關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文獻記錄에 의하면 기원전 2 - 1세기경 경주지방에는 各各의 始祖와 지배자를 가진 혈연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六村이라는 單位集團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삼국사기』 혁거세조에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경주 입실리를 비롯한 이 시기의 분묘 遺蹟群에서는 세문경, 청동기방울(竿頭鈴)같은 청동기문화단계의 표지적인 유물들이 蓋弓帽, 鐵斧, 鐵劍, 馬鐸과 같은 衛滿朝鮮系 토광묘의 典型的인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六村계통의 先住 支配集團들이 衛滿朝鮮系 遺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동기를 소유한 경주 일원의 土着勢力과 融合한 발달된 철기문화의 위만조선계 流移民勢力이 서서히 토착화해가면서 문화의 主導勢力이 되어 경주 입실리 등의 토광목관묘로 추정되는 墳墓遺蹟을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단계의 정치세력은 國 成立이전의 독립적 單位集團으로 祭祀長的 性격을 가진 首長에 의해 지배되어진 사회로 추정된다.

위만조선계 유이민들에 의해 傳來된 토광목관묘는 初期에는 個別墳墓로 造成되다가 기원전 1세기경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다수의 주민집단이 南下하여 경주 지역 先住勢力集團, 즉 六村 세력들이 혁거세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정치

33) 강인구, 앞의 책, 1997, pp. 395 -400

이현해, 앞의 책, 1985

최병현, 앞의 책, 1991, pp. 91 -100- 20 -

집단을 形成하는 斯盧國 성립단계에 이르면서 조양동 유적처럼 集團造營 되기 시작한다.³⁴⁾

기원전 1세기에 이르면 前단계와 비교하여 분묘출토 유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단계 유물군의 특징으로는 첫째, 유물의 구성면에서 철기비중의 증대, 세문경 청동방울과 같은 儀式用具의 감소 내지는 소멸, 車輿具 부속의 첨가, 儀仗具化한 銅鉞, 銅戈의 출현과 같은 諸現狀을 들 수 있다.

둘째, 유물의 文化系統上 이들은 衛滿朝鮮系 遺民과 文化的 流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배자 한 개인이 소유하는 청동기, 철기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祭祀長의 성격보다는 政治的 성격의 君長으로서 확대된 政治基盤과 支配權力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斯盧國은 이 토광목관묘, 즉 순수 움무덤을 갖고 내려온 衛滿朝鮮系 遺民들이 主動勢力이 되어 경주 일원에 세웠던 個別 정치체이며 청동기 사용을 오랫동안 거친 基盤위에서 본격적인 철기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여지며 토광목관묘와 多量の 철기, 瓦質土器, 漢代靑銅鏡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여 진다.

衛滿朝鮮系 流移民 勢力에 의해 경주지역에 도입된 토광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 말 -기원후 2세기 후반에 목곽묘로 전환되기까지 사로국 성립초기의 중심墓制로 목관묘 시기에는 아직까지 斯盧國의 國邑主帥의 지배 권력이 약하여 邑落 勢力을 제대로 統制하지 못하였으며 邑落이 정치적 독립권을 유지하면서 國邑의 세력에 對應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조양동 38호분, 조양동 60호분, 안계리 유적, 사라리 130호분 등 경주 일원에서 地域을 달리하는 수장급 목관묘를 살펴볼 때 國邑은 있었지만 그것이 固定되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國邑의 主帥를 한 邑落에서 고정적으로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推定되기도 한다.³⁵⁾

또한 경주지역과 영남지방 토광목관묘의 지역에 따른 구조상의 차이를 감안할 때 영남지방에서의 토광목관묘의 始作을 일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多元的으로 解釋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영남지방 各地의 토광목관묘가 모두 서북지방으로부터 내려온 流移民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先住民 系統의 주민들이 그들의 墓制를 傳統의 木棺을 사용한 토광목관묘로 轉換해 갔던 地域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주일원도 서북지역 流移民들에 의해 토광목관묘가 전래 되었지만 定着過程에서는 流移民의 급격한 사회변동 誘發보다는 토착세력과 融合한 流移民 勢力이 서서히 土着化해 가면서 變化를 主導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⁶⁾

34) 이성주, 『신라, 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학연문화사, 1998, pp. 51 -52

이희준, 앞의 논문, 2002, p. 134

이성주, 이희준은 목관묘의 집단 조영개시 시점을 진. 변한 國의 성립으로 보았다.

35) 이희준, 앞의 논문, 2002, p. 173

36) 이희준, 앞의 논문, 2000, pp. 101 - 103

3. 土壙木槨墓 단계

1) 토광목곽묘의 특징

가. 立地條件

토광목곽묘 단계에 와서 경주 일원의 토광묘 立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조양동유적에서처럼 평야와 접하는 구릉 경사면의 끝부분에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類型으로 이러한 유형은 철기위주의 토광목관묘 단계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입지형태로 토광목곽묘 단계 말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는 토광목곽묘 단계에 들어서서 경주시내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平地立地는 황성동, 황남동 205번지, 월성로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셋째로는 산의 정상부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입지하고 있는 類型이다. 경주 일원에서는 政來洞유적에서 확인되었다.³⁷⁾ 이러한 정래동유적의 입지조건은 경주 이외의 영남지방 고분형식인 수혈식석곽묘 가운데 重要古墳(高塚)들이 산의 정상부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배치되는 전통이 이미 토광목곽묘 단계 후기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³⁸⁾ 즉 정래동 토광묘의 立地問題는 영남지방 토광목곽묘와 다음 시기 수혈식석곽묘의 連續性, 繼承性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주 일원 토광묘들의 立地와 分布狀態의 문제는 토광묘時期 세력집단들의 성장과정, 斯盧國時代 중심세력들의 據點 등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構造 및 埋葬主體部

토광목곽묘 단계에 오면 墓壙의 규모는 大型化하지만 墓壙의 깊이는 현저하게 얕아지며(대부분 60CM 미만) 木槨과 木棺의 설치방식도 土壙안에 여유를 남기지 않고 土壙壁에 붙여 목곽을 설치하여 뒷채움 점토가 존재하지 않으며 木槨안에는 여유를 두고 木棺을 설치하여 목곽과 목관 사이의 공간에 유물을 副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토광목곽묘 단계의 封土의 規模는 토광목관묘 단계보다는 훨씬 컸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最大型級인 主副槨式 토광목곽묘인 동래복천동 고분군의 31, 32호

이희준은 위 논문에서 팔달동 목관묘군의 樣相을 분석하여 유이민이 급격한 토착사회의 변동을 유발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처음에는 토착세력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유이민 세력은 서서히 토착화해 가면서 마침내 문화전통의 주도세력이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37) 최종규, 「陶質土器 성립前夜와 전개」, 『한국고고학보』 12, 1982

최종규, 「中期古墳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釜大史學』 7, 1983

최종규는 위 논문에서 정래동 토광묘가 위치한 산 전체를 墳丘로 간주하여 적석목곽묘의 盛土墳丘高塚 과는 대비되는 自然墳丘高塚 이라 하고 구릉이나 평지에 자리 잡은 일반대중의 분묘와는 분리되는 입지의 우월성을 갖고 있고 무기의 집중화도 이루어진 것으로 이 정래동 토광목곽묘 단계에서부터 대중에서 분리된 정치적 우월자가 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8) 최병현, 앞의 책, 1991, p. 63

분의 경우에도 복원 시 봉분높이가 2.4M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토광목곽묘 말기까지도 봉토의 규모가 高塚古墳이라고 할 정도로 大型化되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토광목곽묘 단계의 埋葬主體部는 대체로 墓壙이 單一壙으로 장방형인 1기와 墓壙의 길이가 현저하게 길어져 細長形화된 것이나 또는 主槨뒤에 副槨이 발생한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2) 變遷段階와 編年

토광목곽묘 단계는 장방형 墓壙期와 細長型墓壙 또는 主副槨期の 2단계로 나누어지며 세장형묘광 또는 主副槨期는 年代에 따라 前期와 後期の 적석목곽묘 共存期로 세분할 수 있다.³⁹⁾

토광목곽묘의 1단계인 장방형 묘광의 토광목곽묘는 그 구조와 축조수법이 前段階인 토광목관묘와는 크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묘광의 크기는 증대하지만 깊이가 현저하게 얕아지며 목곽을 묘광벽에 가깝게 붙여 설치하여 목관묘 단계이래의 뒷채움 점토부가 없고 목곽 안에 목관을 안치하되 목곽벽과 목관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두어 그 공간에 부장품을 배치하고 있는 구조이다.⁴⁰⁾

이러한 구조의 변화 및 前段階인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되는 토기 (組合牛角形把手附長頸壺, 주머니壺, 소형甕)와는 구분되는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器形(臺附長頸壺, 爐形土器 등)을 볼 때 以前段階 목관묘들과는 異質性이 나타나고 있어 自生的으로 繼承發展 되었다기보다는 서북지방의 새로운 流移民 세력의 南下에 의하여⁴¹⁾ 서북지방의 귀틀무덤의 영향을 받아 그 구조를 加味하거나 간략화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⁴²⁾

그러므로 1단계 장방형墓壙의 토광목곽묘는 기원후 2세기 후반에 새로이 南下한 古朝鮮系 遺民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묘광이 細長化되어 主副槨墓로 발전되어 가는 토광목곽묘 단계 2기의 始作時期이다. 2기의 시작은 경주에서는 황성동 토광목곽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39) 이성주,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 울산중산리 유적과 다운동 유적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 14 1997, p. 7

위 논문에서 이성주는 중산리유적의 목곽묘변천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 초기형 단독곽식 목곽묘, 2단계 - 세장형 주부곽식 목곽묘, 3단계 - 高塚形 목곽묘로 이해하였다.

40) 이러한 경주 일원의 목곽묘구조에 비해 여타 영남지방 목곽묘는 묘광의 깊이는 얕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곽과 묘광벽 사이에 뒷채움 점토가 있고 목곽안에 목관의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그 구조가 목관묘 또는 I 형 토광목곽묘와 비슷한 형태로 추정된다.

41) 『삼국지』 위서 동이전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이라는 기록은 2세기 후반 後漢의 약화에 의하여 漢郡縣 지배하의 고조선계 유민이 다시 남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42) 이성주, 위의 논문, 1997, pp. 13 -17

위 논문에서 이성주는 울산 중산리유적과 다운동유적의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移行하는 과정에서 낙랑지역 墓制와의 관련성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으며, 낙랑지역 목곽묘의 埋葬儀禮를 模倣하는 樣相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황성동 토광목곽묘 출토 토기 중에서 軟質의 臺附直口壺가 포함되어 있다. 황성동 토광목곽묘의 實年代 즉 토광목곽묘 2기의 開始年代를 설정하는 데는 최종규의 瓦質土器 編年表와⁴³⁾ 이성주의 토광목곽묘 시기구분을 참조하여⁴⁴⁾ 3세기 초, 중엽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다음 단계의 토광목곽묘가 적석목곽묘와 공존한 시기는 경주지역에 적석목곽묘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4세기 중엽부터로 보여 진다. 목곽묘 2단계부터 木槨과 墓壙의 壁사이에 補强石을 채우는 형식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 진다.

3) 遺蹟地 및 出土遺物

경주 일원 土壙木槨墓 단계의 主要 遺蹟地와 이에 따른 出土遺物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그리고 주요 유적지의 출토유물을 도면으로 수록한다.

<圖 7 참조 - 隍城洞 출토유물> , <圖 8 참조 - 政來洞 출토유물> <圖 9 참조 - 皇吾洞 출토유물> <圖 10 참조 - 月城路 나 - 13호분 출토유물> 그리고 토광목곽묘에서 토광목곽묘 (적석목곽묘와 共存期 포함)까지 경주 일원을 포함한 영남지역 墳墓에서 출토된 土器의 編年表를 정리하면 <圖 11>, <圖12> <圖13>과 같다. ⁴⁵⁾

43) 최종규는 臺附直口壺를 그의 「新式瓦質土器」 末期인 VI로 보고 實年代를 서기 250년부터로 설정하고 있다.

44) 이성주, 앞의 논문, 1997, p. 9

위 논문에서 이성주는 軟質土器의 器種이 크게 다양화 된 시기를 3세기 중엽으로 比定하였다.

45) <圖 11>, <圖 12>, <圖 13>은 최병현, 앞의 책, 1991, 圖 135 <영남지방 原三國時代 土器 編年表>를 참조하였다.

<표 3> 경주 일원 토광목곽묘 유적 및 출토유물

時期 區分	遺 蹟 地	出土遺物		
		土 器	鐵 器	기 타
1 단계 (기원후 2세기 후반)	조양동 3호분	臺附長頸壺, 爐形토기	철검, 鐵鉞, 鐵鐻	水晶製多面玉
	조양동 1지구 유적 (4基)	壺, 盃 등 軟質土器	鐵製環頭大刀, 鐵鉞	
	조양동 小形墳	적 색軟質土器盃		유리曲玉, 琥珀製多面玉 목걸이
2 단계 (기원후 3세기 초. 중엽)	隍城洞 유적	短頸球形壺, 臺附直口壺 爐形토기, 외반口緣高杯 兩耳附壺	철촉편, 鐵鉞, 철검, 鐵斧	
	조양동 김문환家 副槨墓 유적	軟質土器		
	政來洞 유적 (1 -3槨)	爐形토기, 회청색硬質 土器 球形短頸壺	鐵製釜, 유경식철 촉, 대형鐵鉞, 鐵製환두대도, 鐵製 板甲	
	九於里유적	圓底短頸壺, 爐形器臺, 筒形器臺, 컵형토기, 회청색경질토기 短頸壺	鑄造鐵斧, 철검, 환두대도, 꺾쇠, 鐵製板甲	
	皇吾洞 유적	球形直口壺, 有蓋球形 直口壺, 短頸球形壺, 無蓋式高杯, 兩耳附壺, 有蓋臺附小壺 등 회청색 硬質土器類 다수		
	월성로 가-30號 墳	臺附短頸壺, 圓底短頸壺,		
3 단계 (기원후 4세기 중엽)	皇南洞 205번지 유적	有蓋式高杯, 高杯두경 長頸壺,把手附杯, 臺附盃 등 회청색 硬質土器類	梯形구조철부, 철촉	
	월성로 가-29, 31, 나-13號墳	爐形토기, 有臺兩耳附 短頸壺, 高杯形토기, 컵형토기, 有蓋式高杯, 圓底長頸壺 등 硬質土器	鐵製板甲,鐵鉞,철촉 梯形구조철부, 鐵鉞 小刀子, 단조철부, 鐵刀, 철검	목걸이, 土製 어망추, 小札片

4) 出現背景 및 時代狀況

三韓社會를 크게 두시기로 나눈다면 그 境界는 기원후 2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墓制變化이다.

경주지역에 토광목곽묘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후 2세기 후반경의 時代狀況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三韓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漢 郡縣에 큰 위협적 세력이 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背景要因으로는 鐵器文化의 광범한 확산과 그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增大 및 인구증가와 각 小國간에 交易活動이 활발해짐에 따른 財富의 축적 등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인 基盤이 확립되었음을 들 수 있다. 三韓小國의 內的인 성장은 小國간의 武力對立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狀況들은 國邑主帥(君長)의 정치권력 強化에 상승作用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三韓의 小國들은 小國 成立初期의 지배권력의 限界를 극복하고 單一한 정치집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발달된 政治機能을 발휘하게 된다. 즉 三韓後期 목곽묘사회에서는 사회, 문화적 획기적 變化에 의한 사회계층의 分化로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以前의 際儀權을 중심으로 영위된 社會構造가 경제력 및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政治體로 교체하면서 기원후 2세기 후반부터 三韓社會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時代狀況 하에서 斯盧國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先進文物을 지녔던 流移民 勢力의 持續的 합류와 해안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陸路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利點과 교통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내외 交易의 優位를 점함으로서 다른 小國들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기원후 2세기 이래 지속적인 斯盧國의 주변 小國정복으로 세력격차가 深化되어 경주중심의 세력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완만하고 대등한 상태의 結束關係가 점차 정치, 경제적인 支配服屬關係로 轉換되어 斯盧國은 12국으로 구성되는 辰韓 聯盟體의 맹주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기원후 2세기경 斯盧國의 시대배경에서 경주지역에 전래된 새로운 墓制인 토광목곽묘는 墳墓構造와 出土토기로 볼 때 서북지역의 귀틀무덤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원후 2세기 후반 새로운 古朝鮮系 流移民 勢力의 南下에 의해 傳來된 묘제로 추정된다. 그러나 목곽묘가 축조되기 前 목관묘인 경주 사라리 130호가 보여 주듯이 목곽묘가 출현하기 직전 이미 그에 비견할 만한 큰 목관묘가 造成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거대한 목곽묘의 채택은 새로운 流移民의 직접적인 流入에 기존 先住勢力이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既存 목관묘 造成勢力의 달라진 정치적 位相이나 사회분위기에 의해 지배세력의 權限強化에 따른 副葬遺物의 증가와 거대한 분묘 造成에 의한 대내외 과시 등 그들의 필요에 따른 文化受容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목곽묘의 受容은 斯盧國 사회 내부의 꾸준한 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墓制의 變遷이 流移民의 移動에 의해 유발되었지만 문화적 수용과 성장은 내부적인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4. 積石木槨墓 단계

적석목곽묘 단계에서는 묘제의 구조적 특징과 편년은 제외하고 적석목곽묘의 發生時期 및 그 起源과 적석목곽묘 출현이 新羅社會에서 갖는 의미와 신라사회의 배경을 考察하여 신라의 고대국가 성립과 적석목곽묘와의 聯關關係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發生時期

적석목곽묘의 出現年代에 대해서는 4세기 중반설과 5세기 초 이후의 설로, 消滅年代는 6세기 중반설과 6세기 후반설로 압축되면서 맞서 있는 상태이나 적석목곽묘의 주요 유물인 陶質土器에 대한 편년을 바탕으로 볼 때 적석목곽묘의 축조 시기는 4 - 5세기가 중심年代이며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에 걸쳐 축조되어 약 200 - 250 년간 이어진 墓制로 이해되고 있다.

적석목곽묘의 발생 시기는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에 나와 있는 신묘년(391년)記事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4C 중반 (35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⁶⁾ 발견된 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년되는 고분으로 황남동 109호분 3.4곽 및 황남대총 南墳을 들 수 있으며 황남대총 南墳은 북연의 풍소불墓에서 출토된 등자의 비교를 통해 기원후 415년을 소급할 수 없으며, 기원후 415 - 500년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以後 금령총, 호우총, 천마총 등 적석목곽묘가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적석목곽묘의 起源

가. 적석목곽묘 起源에 관한 제 학설

적석목곽묘의 기원에 대하여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있어온 제 학설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신라 적석목곽묘 起源의 문제는 日人學者 梅原末治 (1932)가 제기한 것이 始初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이 研究主題 및 적석목곽묘와 관련된 주제는 持續的으로 한국 고고학계의 최대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간에 이루어진 신라 적석목곽묘의 起源에 관한 제 학설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梅原末治의 학설 (1932년)

낙랑목곽묘의 木槨과 토착 지석묘의 下部構造에 보이는 積石이 결합하여 在地

46) 김창호, 「신라적석목곽묘의 연구성과와 과제」, 『신라문화』 22, p. 10에서 신라에서 완전한 형태의 적석목곽묘 상한을 4세기 중엽쯤으로 추정하며, 당 시기의 적석목곽묘의 구체적인 예가 현재까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

② 박진욱의 학설 (1964년)

在地 토광목곽묘의 木槨과 지석묘의 積石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⁴⁷⁾

③ 강인구의 학설 (1981년)

고구려의 적석총이 南下하여 재지 토광묘의 목곽을 채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⁴⁸⁾

④ 최종규, 신경철의 학설 (1983, 85년)

고구려의 南征에 의해 재지 토광목곽묘가 고구려 적석총의 積石을 채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⁴⁹⁾

⑤ 최병현의 학설 (1990년)

북방기마민족의 급속한 이동결과에 따른 시베리아의 알타이쿠르칸이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로 등장하였다고 주장⁵⁰⁾

⑥ 이성주의 학설 (1996년)

新羅式 목곽묘의 전통과 범주 내에서 경주지역의 최고위 계급의 大型墳 축조 방법으로 특수하게 발전하였다고 주장⁵¹⁾

⑦ 이희준의 학설 (1996년)

사방적석식 적석목곽묘에서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로 발전하면서 大型墳의 특수형식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

나. 起源에 관한 제 학설의 타당성 檢討 및 批判

그간에 이루어진 신라 적석목곽묘의 起源은 系統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연구성과는 두가지 학설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경주지역에서의 自生的, 漸進的 변화나 발전으로 보는 내부 발생설(자생 진화설)이고 둘째는 외부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는 외부 영향설이다.

외부 영향설은 다시 고구려 墳墓文化, 즉 적석총으로부터의 영향과 신라 토광목곽묘의 결합의 產物이라는 소위 二元論的 계통론의 학설과 북방아시아 기마민족의 직접적인 이동의 產物이라는 북방기원설의 두 학설로 나누어진다.⁵²⁾ 여기에서는 적석목곽묘 起源에 관한 두 학설, 내부발생설과 외부영향설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既存의 研究成果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7) 박진욱, 「신라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4, 1964, pp. 54-61

48) 강인구, 「신라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계통」, 『한국사론』 7, 1981

49) 최종규, 「中期古墳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釜大史學』 7,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3

신경철, 「古式鎧子考」, 『釜大史學』 9,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5

50) 최병현, 「신라의 성장과 신라고분문화의 전개」, 『한국고대사 연구』 4, 지식산업사, 1991 pp. 160 - 162

51) 이성주, 「신라식 목곽묘의 전개와 의의」, 『신라고고학의 제 문제』, 한국고고학회, 1996

52) 강봉원, 「신라 적석목곽분 출현과 기마민족 이동 관련성의 비판적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46, 2004, p. 140

① 내부 발생설(自生進化說)

自生進化說은 在來의 木槨墓에 積石副槨의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지하에 놓이는 목곽과 그 墓壙 사이에 積石하는 이른바 지하 사방적석식의 적석목곽묘가 성립한 후 점차 적석의 量이 많아지는 쪽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목곽의 上部가 地上으로 올라온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봉분의 거대한 指向的 변화만은 아니고 피장자들의 사회적 位階構造가 복잡해진 것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지배계층 안의 分化가 한층 深化되었고 그만큼 무덤구조와 형태도 多樣化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석목곽묘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噴口形態를 나타내는 圓形護石도 점차적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 외부 영향설

② - 1 二元論的 계통론

적석목곽묘는 三韓時代 토광목곽묘가 발전해서 巨大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영남지방 각지에서 적석목곽묘와 같은 시기에 등장하는 高塚의 봉토무덤 築造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적석목곽묘 初期의 출토유물에서 토광목곽묘 유물과 類似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현상이 두 묘제간의 연결성을 보여 주고 있다.(硬質土器, 鐵製遺物 등) 또한 적석목곽묘의 출토유물 중 호우총의 靑銅盒, 서봉총의 銀製盒, 고구려 계통의 기마전술용 馬具類를 통해 볼 때 고구려 적석총과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는 木槨部, 積石部, 封土部, 護石部 등 4개의 중요한 요소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4요소 중 起源을 따질 수 있는 것은 목곽부와 적석부이다. 목곽은 이미 원삼국시대 토광목곽묘에서 설치 사용한 바가 있는데 이 목곽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적석부는 古墳에서 封土를 除하면 대략 14-15M의 方形 積石部만 남는데 이 형상과 규모는 압록강유역 지방의 고구려 적석총과 대단히 흡사하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등장은 三韓時代 토광목곽묘의 전통과 고구려 적석총의 영향 아래 신라의 마립간시대 王權을 반영하는 高塚古墳의 축조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 2 북방기원설

신라 적석목곽묘의 변천과정은 小型化, 簡略化, 省略化 되어가는 과정이었으므로 그 기원을 추적하기 위한 모델은 原型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初期大型墳이어야하며 적석목곽묘의 原型은 일체 완성형으로 북방 기마민족의 移動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황남대총과 같은 超大型 적석목곽묘를 도입 時의 原型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북방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방, 중앙아시아와 경주에서 발견되는 적석목곽묘의 외형적 모습뿐 아니라 구조상의 類似性, 분묘 내에서 출토되는 金제품 유물 및 북방계 유물, 유물에 반영된 동물문양, 副葬馬具와 封土 정상부

의 마구류 埋葬 등의 기마민족 문화적 성격 등을 거론하면서 그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提示된 적석목곽묘 起源에 대한 諸 학설에 대해 모순점을 살펴보면 첫째 북방기원설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라 적석목곽묘와 중앙아시아의 적석목곽묘는 木槨과 積石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規模 및 構築方法 등 構造의 相異함, 두 지역 묘제가 存在했던 期間의 너무나 큰 時差問題,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점, 文化傳播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서 類似痕迹의 不在, 두 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關聯性 不在, 기마민족의 농경 정착 過程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二元的 계통론에 의한 고구려 적석총 영향설은 고구려 적석총의 南下 또는 광개토왕시대 고구려의 南征에 의해 적석총 묘제가 전래되어 在地의 목곽묘와 결합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학설의 모순점을 살펴보면 기원후 2-3세기경 고구려의 적석총이 신라로 남하하여 경주평지에 적석총이 축조되었다는 주장은 당시의 고구려와 신라, 즉 斯盧國의 대외적 관계로 볼 때 傳統的인 文化方式인 묘제의 교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며 처음에는 순수 적석총이 축조되었다가 기원후 5세기경에 이르러 積石위에 封土가 補強되었다는 주장도 적석목곽묘 축조의 構造상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기원후 400년 광개토왕의 南征에 의해 고구려의 적석총의 영향을 받았다는 理論도 당시 고구려에는 石室封土墳이 盛行하고 있었으며 적석총은 消滅되어 가는 묘제인데 신라에서 이러한 묘제를 받아들여 新葬制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묘제로 채택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내부발전설 (自生進化說)을 살펴보면 최병현의 反論⁵³⁾에도 불구하고 가. 토광목곽묘 後期단계에 목곽과 墓壙벽 사이에 割石 뒤채움 형식의 大型 토광목곽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동래 복천동 고분군, 경산 임당동, 조영동 고분군, 김해 예안리 고분군 등)

나. 비록 사방적석식 적석목곽묘가 적석목곽묘의 範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적석목곽묘 形式이 이희준의 주장처럼 사방적석 형태에서 상부적석 형태로 漸進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根據를 경주 월성로, 황성동 강변로 유적 등에서 추정할 수 있다.

다. 경주 이외의 영남지역 여러 곳에서 적석목곽묘로 분류되어지는 墳墓의 존재

53) 최병현,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再論」, 『승실사학』 32, 승실대학교 사학회, 1998

위 논문에서 최병현은 첫째, 이희준의 사방적석식 적석목곽묘가 사실은 적석부가 묘광선 밖에서 시작 되는 점을 들어 사방적석식임을 부정하고, 적석목곽묘의 변천과정이 사방적석식 - 상부적석식 - 지상적석식의 順이 아니라 사방적석식은 몇 가지 유형의 적석목곽묘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중산리 유적을 검토한 이성주의 주장에 대해 중산리 고분의 적석시설과 호석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경주 중심부에는 원형호석과 원형봉분을 가진 적석목곽묘가 출현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하였다.

가 주장되고 있으며 그 發生時期를 기원후 3세기말로 보고 있다.⁵⁴⁾(홍해 옥성리고분군을 위시한 대구, 경산, 영천, 영덕, 선산, 안동, 울산, 부산, 김해, 창녕, 함안, 합천, 상주, 의성, 예천 등)

라. 후기 토광목곽묘 단계 (적석목곽묘와 共存期 포함)의 대형목곽묘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初期 적석목곽묘(경주분지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類似性和 連續性을 볼 수 있다.(陶質土器 및 鐵製유물 등)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적석목곽묘의 起源과 構造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前墓制와의 단절성을 강조하거나 적석목곽묘의 築造集團을 새로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적석목곽묘는 在地의 토광목곽묘가 문화적인 발전단계에 따라 漸進적으로 변화하면서 古代國家로 발전하는 마립간기 신라 지배세력의 필요에 의해 성립된 신라의 독특한 묘제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신라 적석목곽묘의 起源은 三韓時代 토광목곽묘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신라의 마립간시대 王權을 반영하는 高塚古墳의 축조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는 내부발전설 (自生進化說)理論에 동의하고자 한다.

3) 적석목곽묘 출현의 意味와 신라사회 背景

적석목곽묘의 축조 시기는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간 해당되는데 이 시기는 新羅歷史에서 최고지배자가 마립간으로 불리던 시기와 一致한다. 마립간의 등장은 김씨 世襲王朝의 성립과도 관련이 있으며, 마립간기는 김씨 세습 王朝의 확립기이기도 했다. 마립간의 出現은 안으로 김씨 왕조를 탄생시켰고, 밖으로는 영남지방 諸 勢力간의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경주세력이 영남지역을 석권 하였음을 보여준다.

적석목곽묘는 周邊小國의 병합단계인 이사금시대를 거쳐 長子世襲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집권적인 王權이 확립되어 가는 마립간시대라고 하는 과도기적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墓制라고 할 수 있으며 적석목곽묘의 下限을 대체로 6세기 중반으로 볼 때 이는 진흥왕대에 해당하며 신라가 對外的으로 팽창,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마립간기에 축조된 신라의 적석목곽묘는 신라 지배계층의 필요에 의해 수용되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물마립간 이후 신라의 王權이 김씨 왕족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보면 적석목곽묘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김씨 왕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김씨 왕족만이 적석목곽묘를 사용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석씨족, 박씨족에서 여전히 왕비가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적석목곽묘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남대총 北墳에서 여성용 금관까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관의 주인공을 王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적석목곽묘는 대체로 신라의 지배계층이 사용한 墓制이고, 금관의 주인공 역시 왕의 최측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54) 김대환, 「영남지방 적석목곽묘의 시공적 변천」, 『영남고고학보』 29, 2001, pp. 8 - 11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마립간기의 신라는 정치적인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마련하고 그 위에 왕권의 강화를 圖謀할 수 있었다. 물론 絶對的인 왕권의 강화모습은 中古期代의 일련의 제도정비, 불교수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김씨족에 의한 왕권의 확립과 지방제도 마련의 바탕은 마립간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4세기 경 신라는 周邊小國에 대한 병합을 마치고 國家 内部體制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에는 官制의 마련과 더불어 地方編制가 우선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編制는 곧 중앙정부의 지방주민의 파악, 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力役에 동원되는 體制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이 시기에 이미 力役體系가 세워져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後代의 일이기는 하지만 남산신성비, 명활산성비, 무술오작비, 영천청제비 등을 통하여 해명되어 왔다. 따라서 古新羅의 古墳築造 역시 力役體系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신라의 國家體系가 이 시기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석목곽묘를 축조하던 시기의 新羅, 즉 마립간을 王號로 사용하던 시기의 신라는 결코 막 國家의 體制를 갖추어 나간 단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국가의 首都인 경주에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여 축조한 古墳을 보아도 그렇고 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築城, 築堤사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신라는 지방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對民編制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대규모 인력동원을 통해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시켜 나갔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거대한 古墳의 축조 역시 王權의 의도적인 과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적석목곽묘 축조기와 마립간기 신라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피장자는 이미 新羅라는 국가 지배세력의 지위를 공고히 한 김씨 왕족이다.

둘째 적석목곽묘의 축조시작과 그 構造와 副葬遺物의 변화는 급격히 진행된 것이 아니며 限定된 지역에 나타나고 있고 신라 지배세력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셋째 마립간기 신라의 지배집단인 적석목곽묘 築造者들은 持續的인 지배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對民編制에 적극적이었으며 이의 한 證據가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축조한 적석목곽묘라고 할 수 있다.

마립간기 신라의 정치적 발전단계는 高塚으로 王權을 시위하는 그러한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공고한 對民編制에 힘입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마련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적석목곽묘를 축조할 정도로 발전한 사회였다고 생각된다. 적석목곽묘의 출현을 祭儀的 성격으로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적석목곽묘의 출현은 신라의 古代國家 성립과 그 出發을 같이 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斯盧國의 성립과정에서부터 신라가 古代國家로 성립하기까지의 신라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면서 각 시기별 主墓制인 토광목관묘에서 적석목곽묘까지 新羅墓制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연구하여 신라의 발전과정 속에서의 묘제의 변천현황 및 시기별 묘제의 성격과 意味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墓制變遷이 신라의 발전과정과 어떻게 關聯되어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신라의 묘제변천과 新羅歷史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신라의 歷史 전개과정에 따른 결과물로서 묘제의 변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묘제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토광목관묘는 衛滿朝鮮系 流移民 勢力에 의해 기원전 2세기말 - 기원전 1세기 초에 傳來되어 기원후 2세기 후반에 목곽묘로 轉換되기까지 斯盧國 성립초기의 中心墓制로 아직까지 국읍의 정치세력이 읍락의 首長들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君長의 성격이 祭司長적인 성격이 남아있던 시기의 묘제로 볼 수 있다.

한편 목곽묘는 斯盧國이 辰韓 聯盟體의 맹주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三韓社會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기원후 2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墓制로 漢 郡縣의 약화에 의해 서북지역에서 새롭게 南下하기 시작한 流移民 勢力에 의해 傳來된 묘제로 추정된다. 목곽묘가 전래된 시기는 三韓이 後期社會로 들어서면서 이전의 祭儀權을 중심으로 지배되고 또한 邑落이 독립적으로 영위되던 사회구조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國邑 勢力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가 성립, 발전하여 가는 시기이다.

토광목관묘 및 목곽묘 등 墓制의 변천은 서북지역 流移民들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묘제의 전통성과 보수성을 생각해 볼 때 토착세력의 持續的 내부발전에 의한 문화적 受容과 성장에 의한 필요성에 의해 정착되었고 定着過程에서는 流移民의 급격한 사회변동 誘發보다는 토착세력과 融合한 流移民 勢力이 서서히 土着化해 가면서 變化를 主導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화의 傳來過程에 대한 傳播論的 시각과 함께 進化論的인 시각의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적석목곽묘의 起源은 墓制文化의 漸進的인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내부발생설(자생진화설)이 理論上 타당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적석목곽묘의 출현은 신라가 古代國家로 성립되는 문화적 標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시기별 新羅墓制의 변천과 신라의 성장과정과의 聯關關係를 고찰하면서 묘제의 變遷이 의미하는 時代的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敍述이 미흡하고 각 時期 분묘유적의 구조,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등에 實證的 비교가 부족하여 아직 많은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限界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다음에는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폭넓은 新羅古墳 연구를 통해 墓制를 통한 폭넓은 그 시대의 社會相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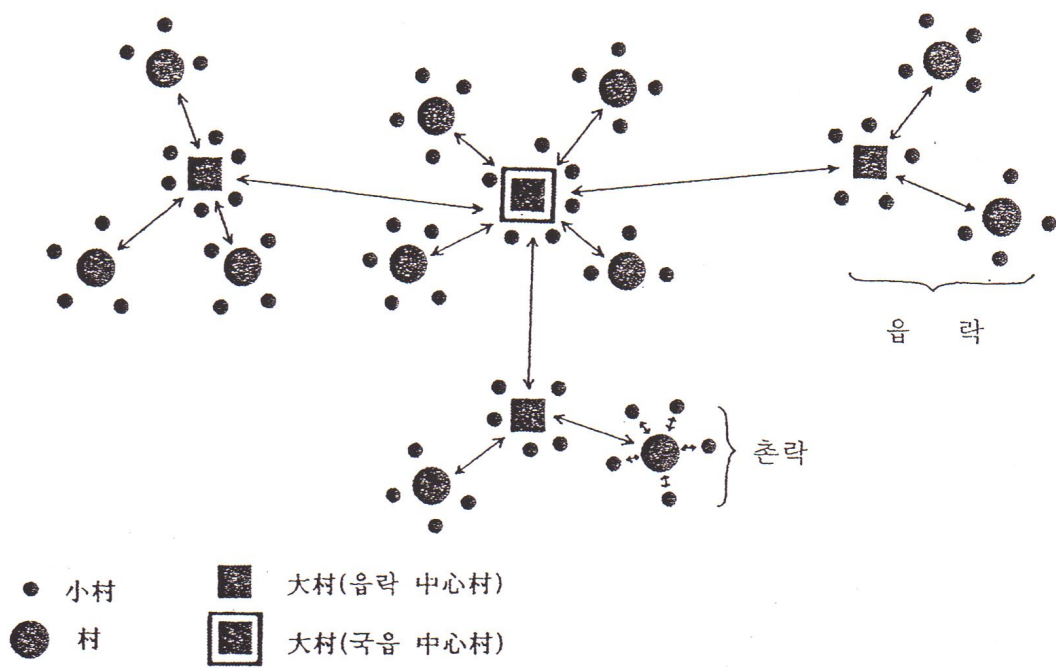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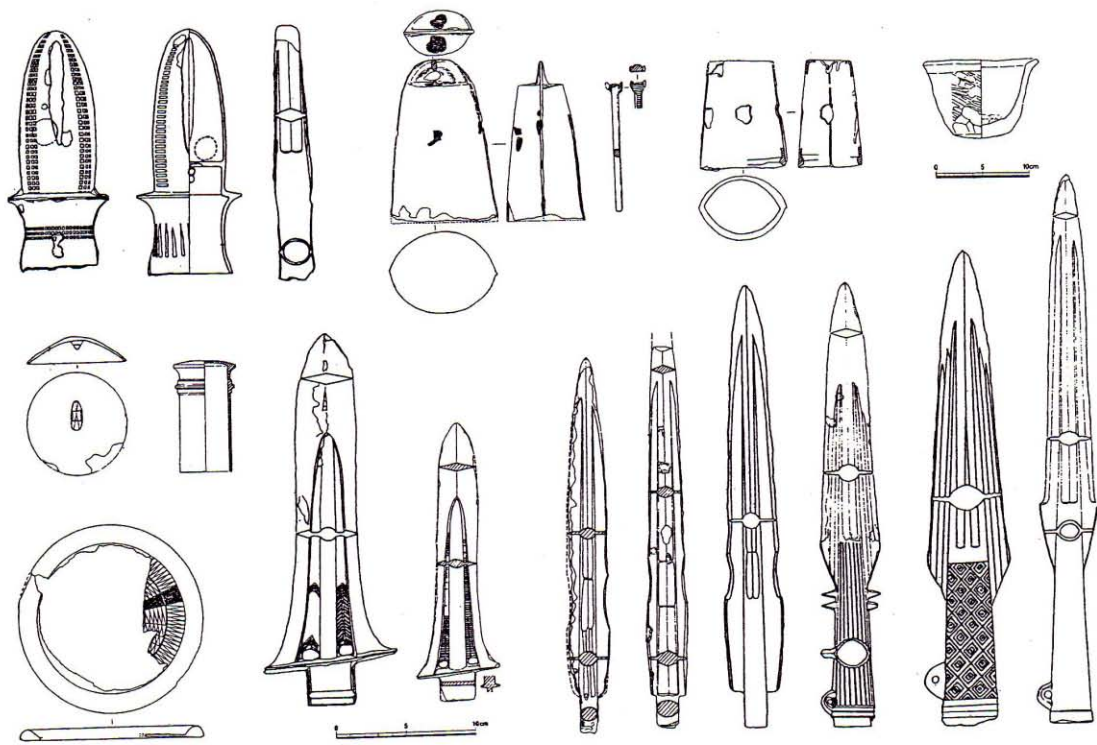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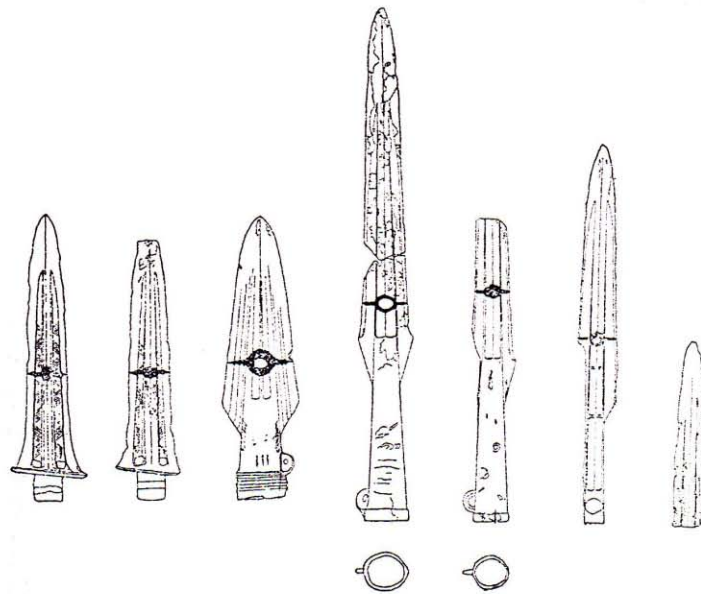


圖1 삼한 國의 구조 개념도



경주 입실리 출토유물



경주 평리 출토유물

圖2. 경주 입실리 및 평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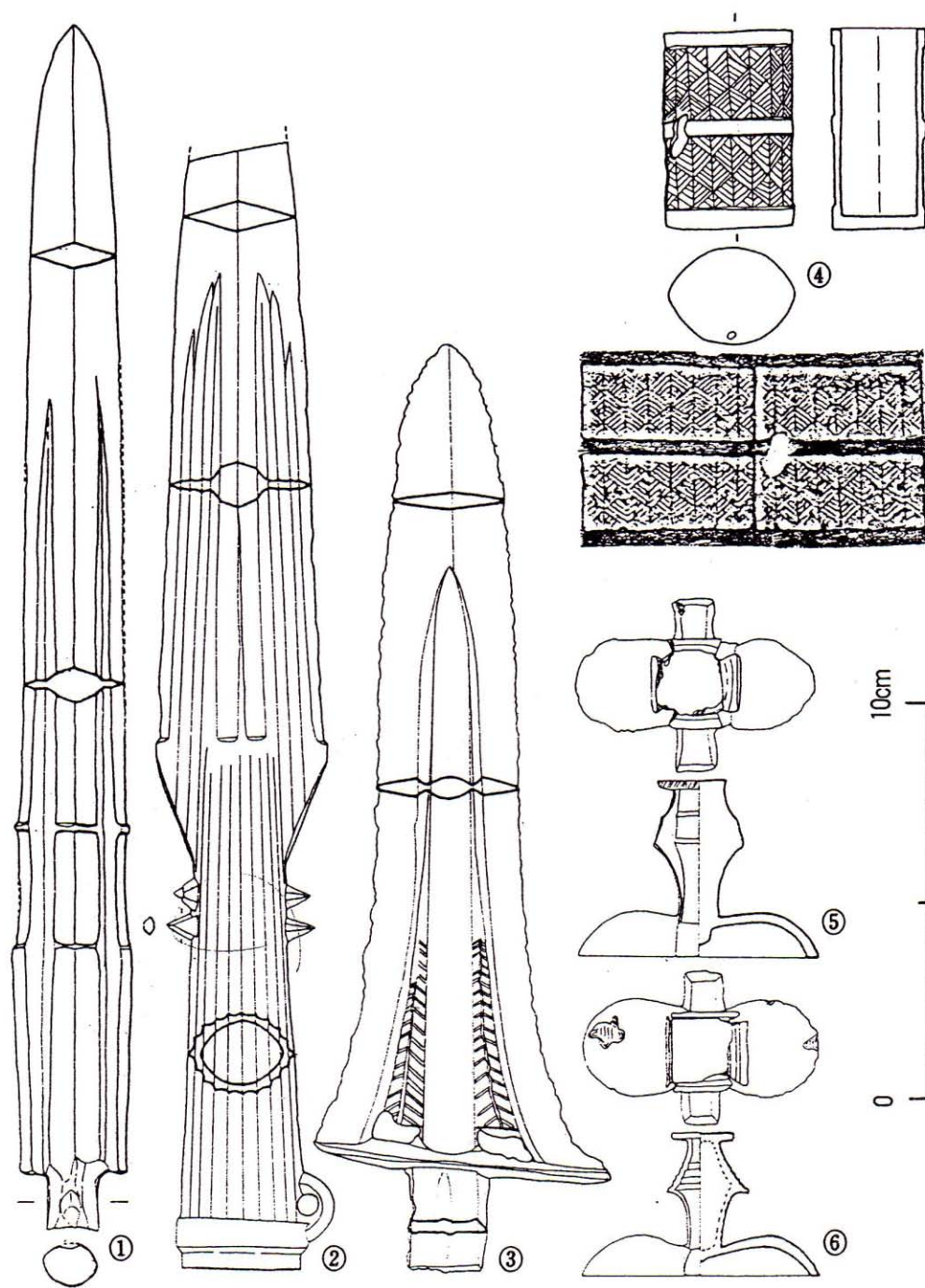


圖3-1. 월성 죽동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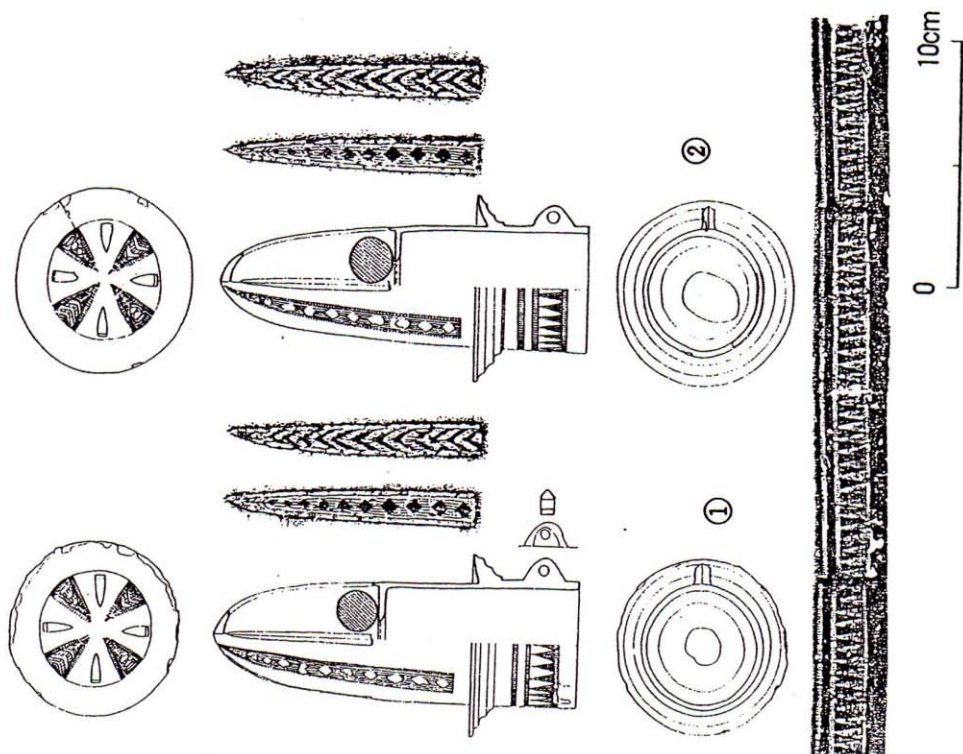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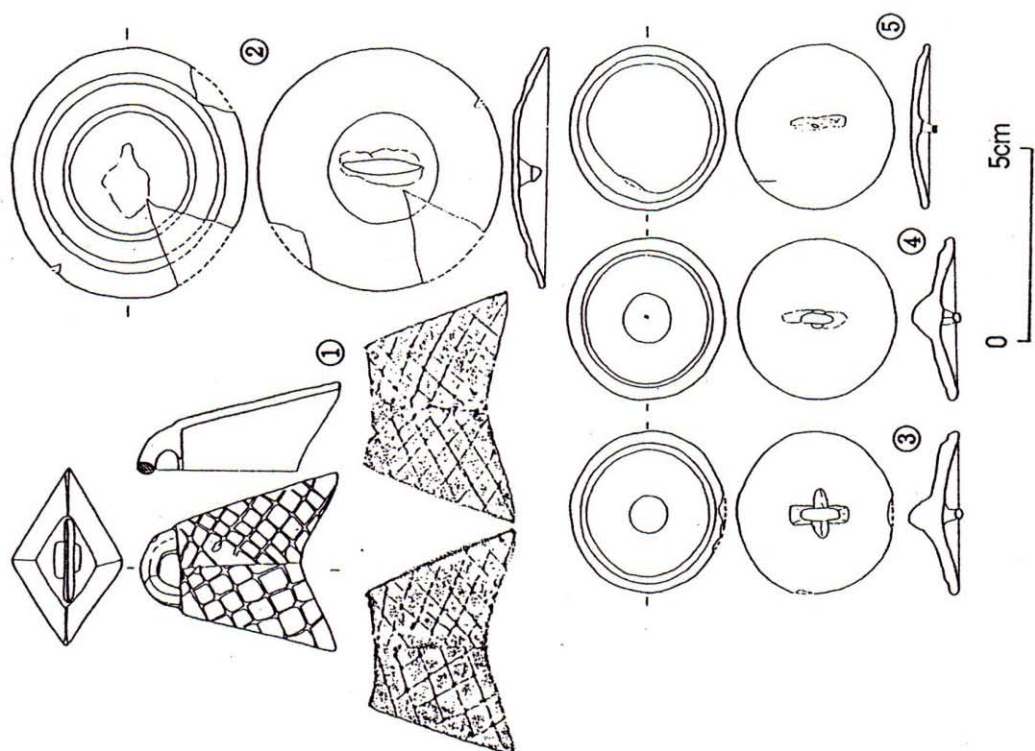


圖3-2. 월성 죽동리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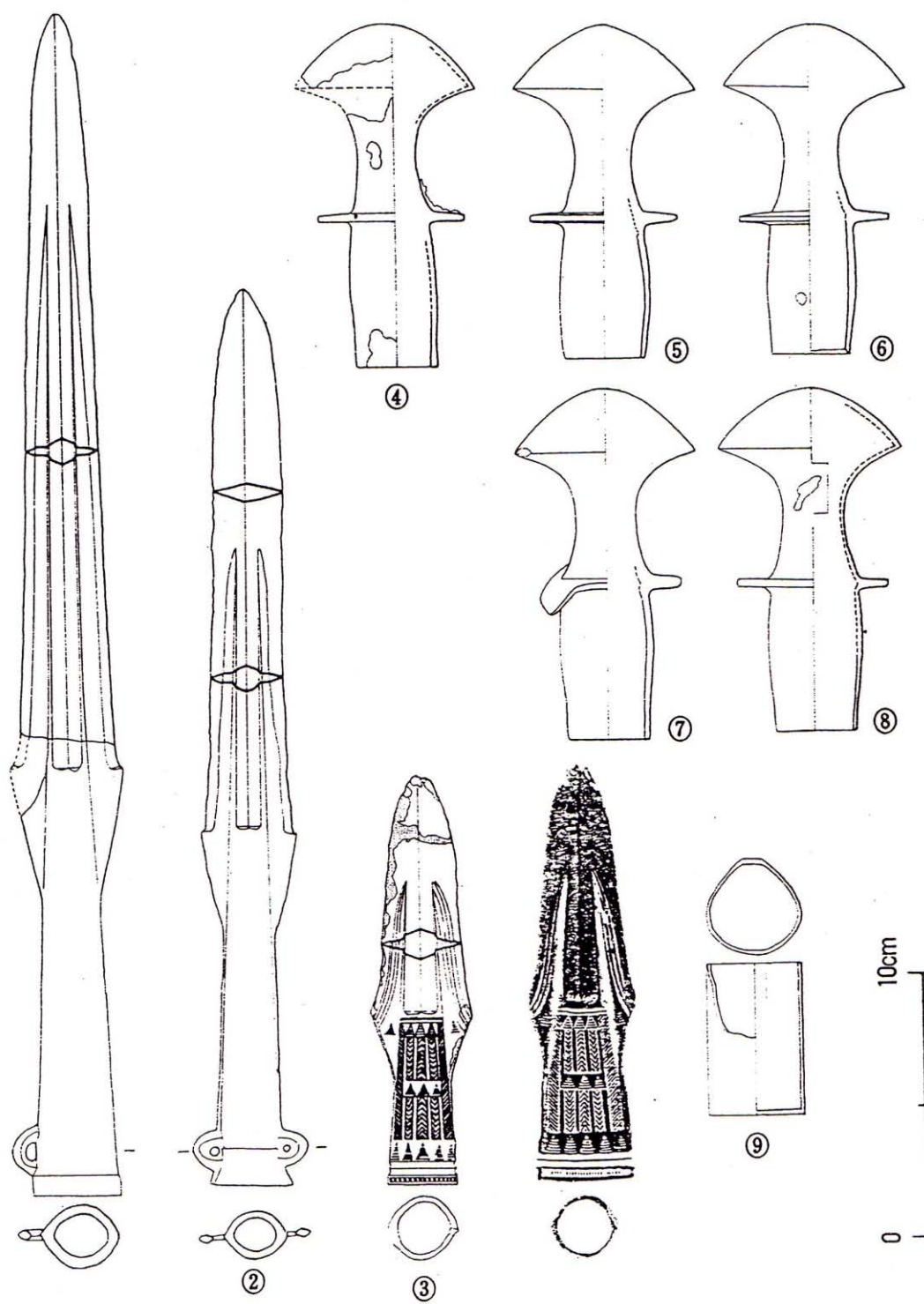


圖4. 월성 안계리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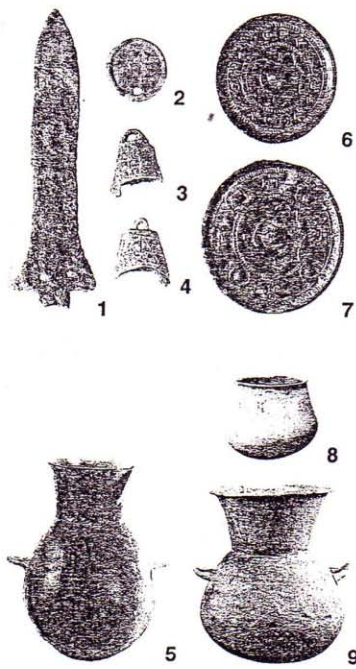


圖5. 조양동 5호 및 38호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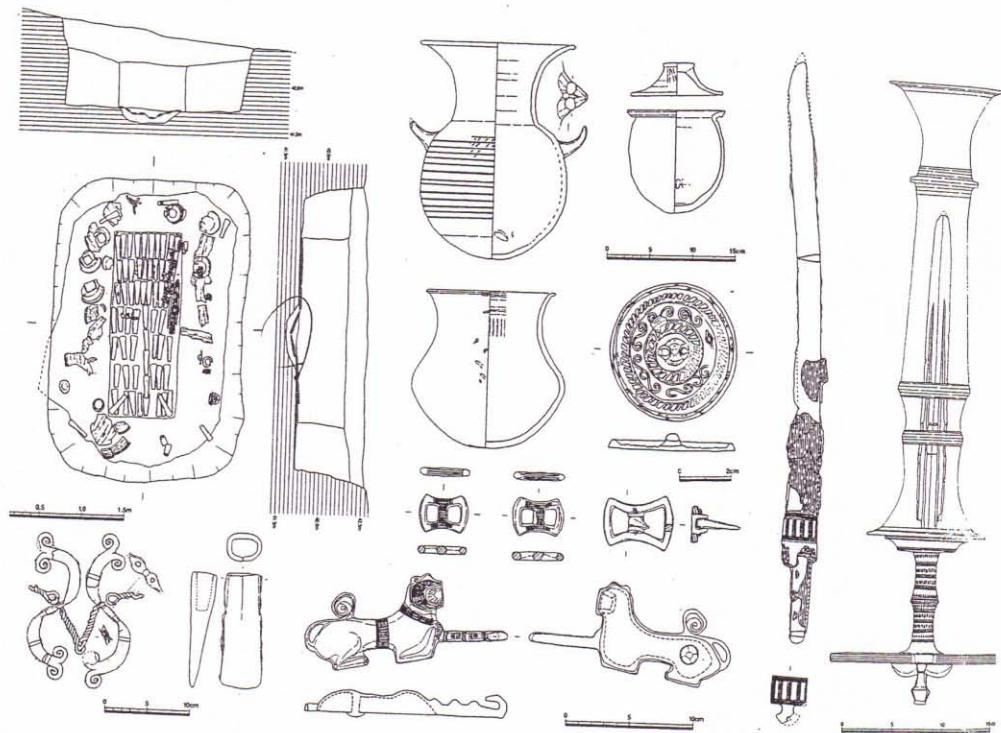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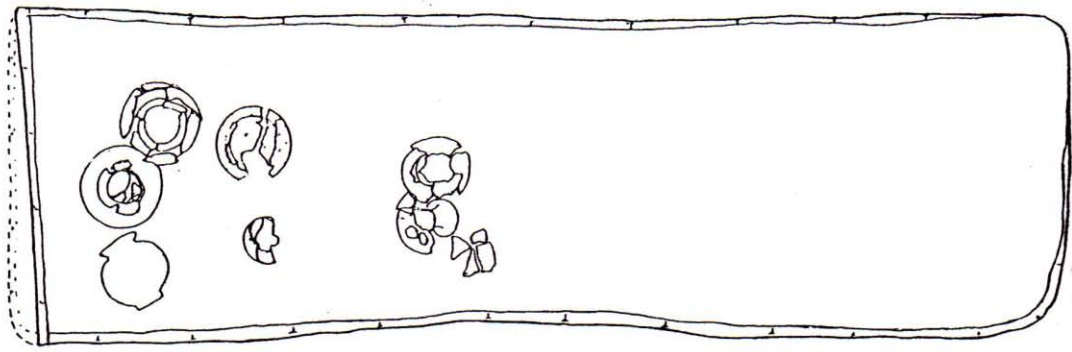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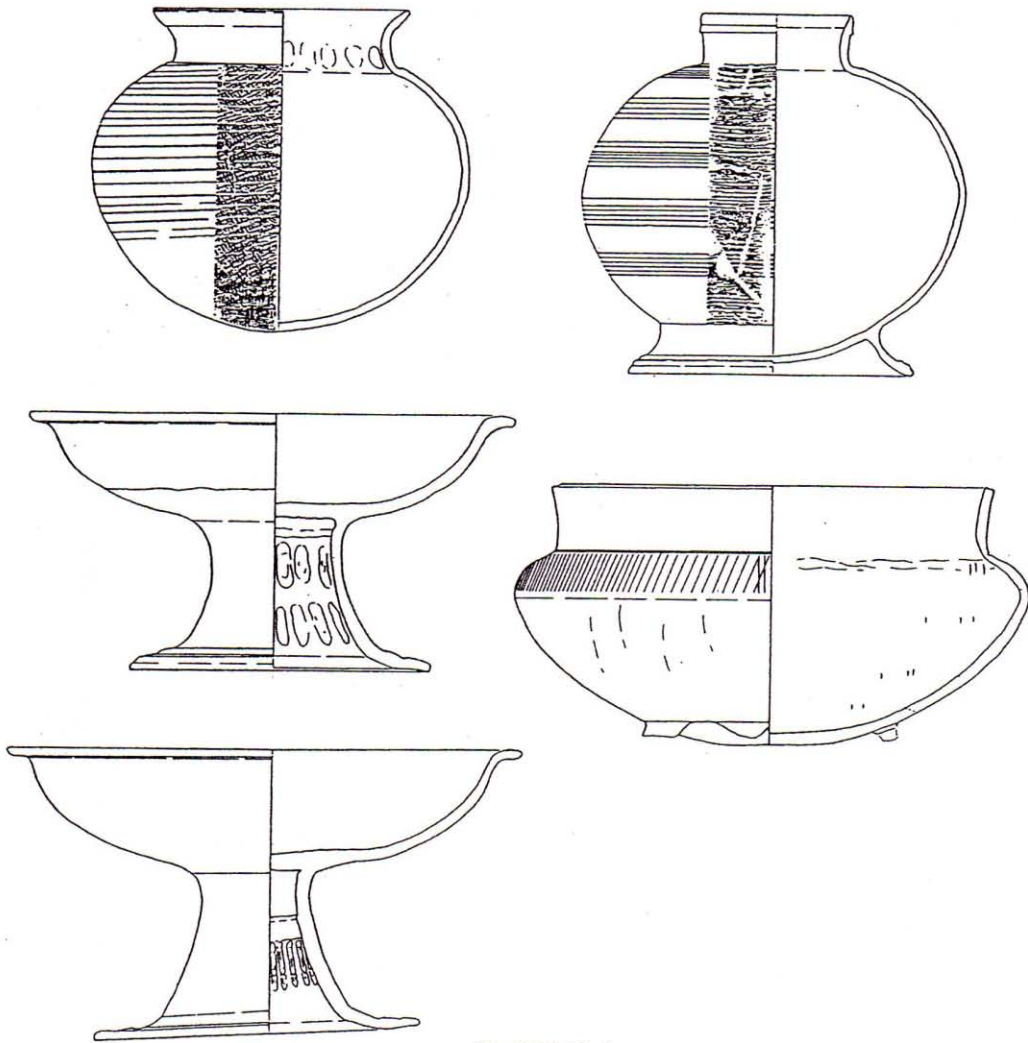


圖6. 사라리 130호분 출토유물



① 遺構 實測圖



② 출토토기

圖7. 황성동 토광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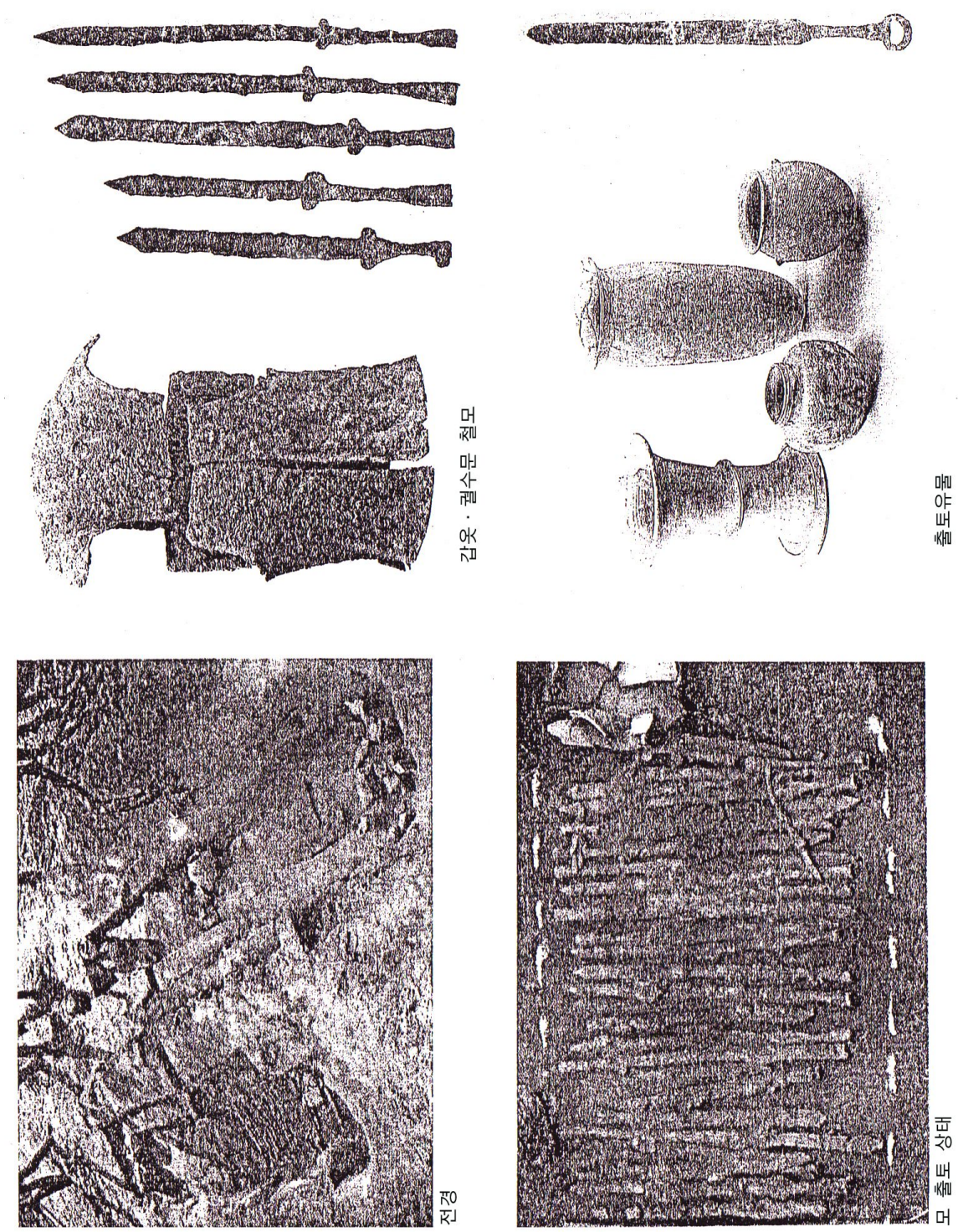


圖8. 정래동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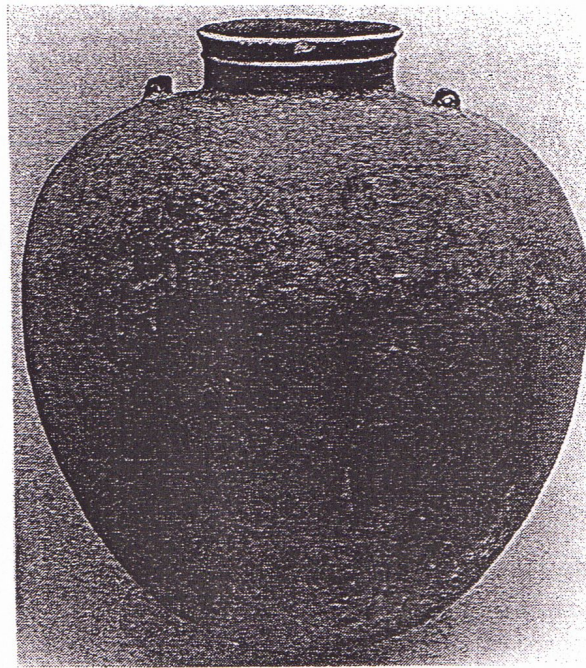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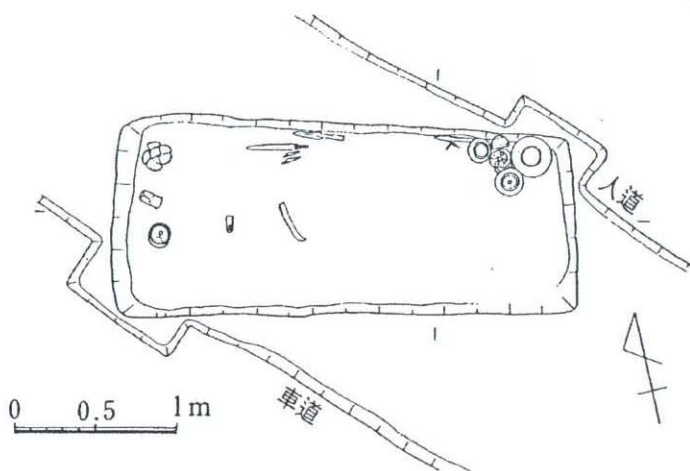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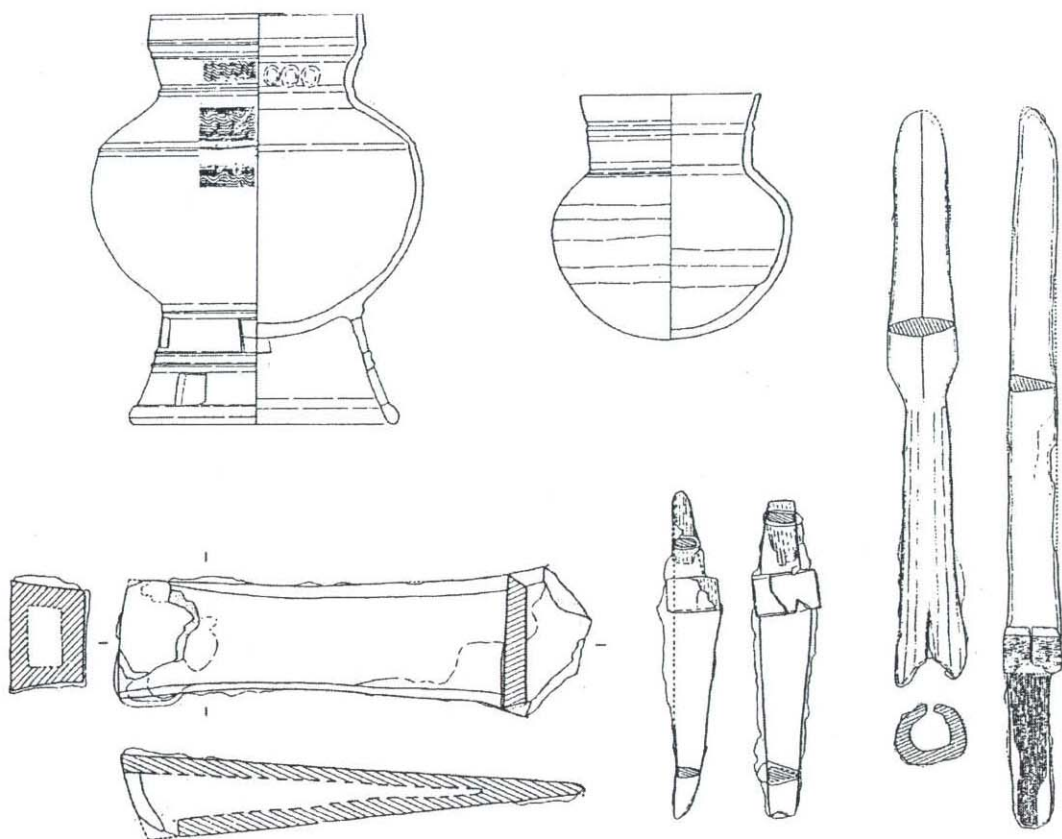


圖9. 향오동유적 출토토기 유물



① 踏踏 식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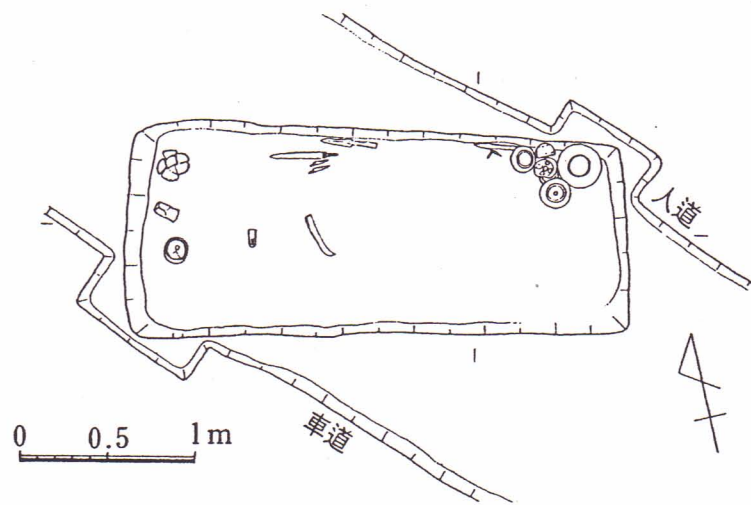
① 유적식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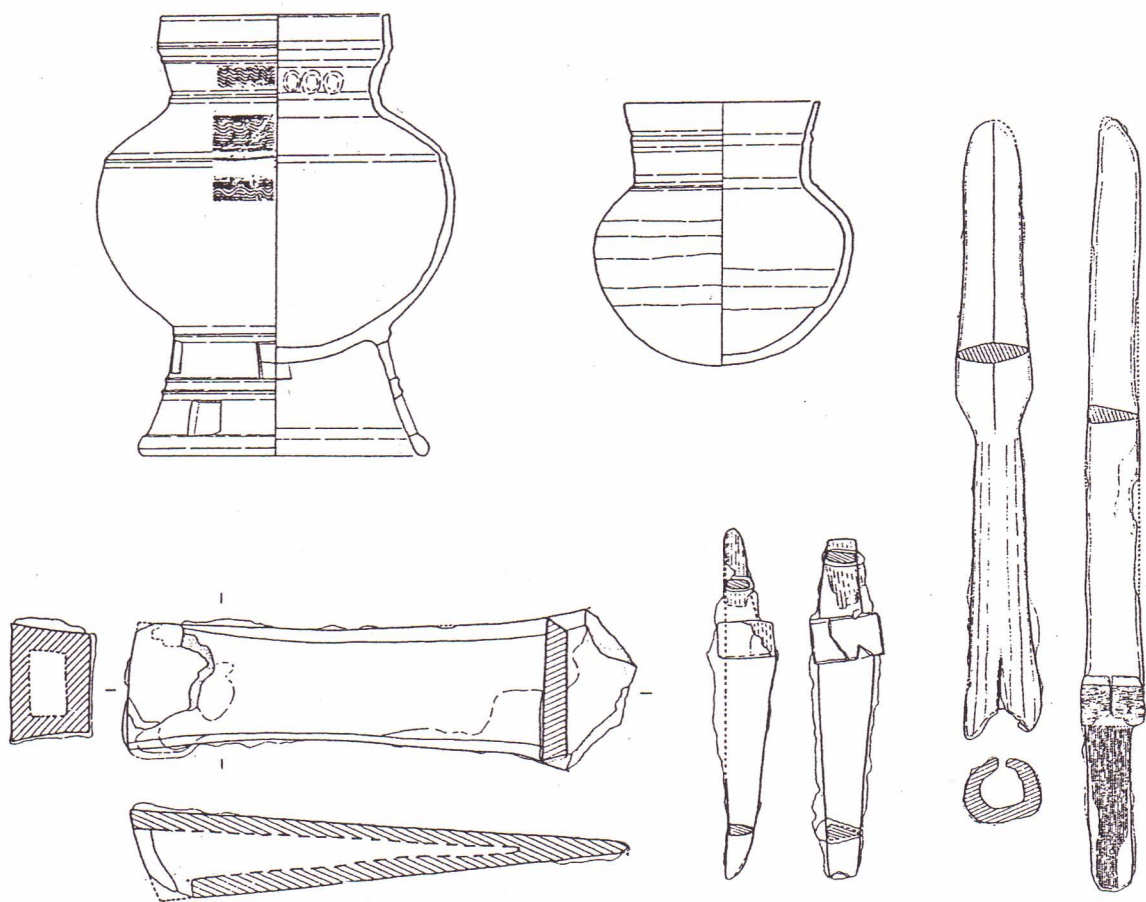
② 출토유물

② 출토유물

圖10. 월성로 나-13호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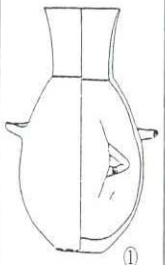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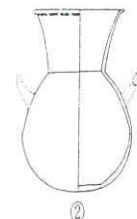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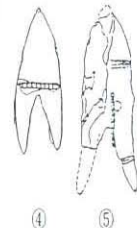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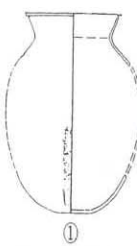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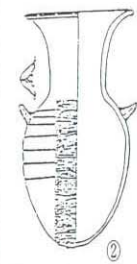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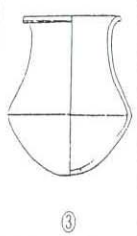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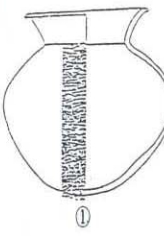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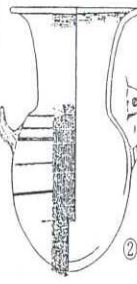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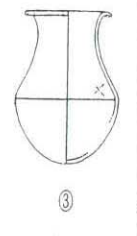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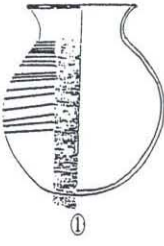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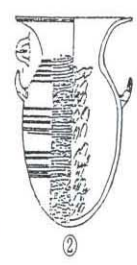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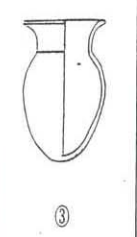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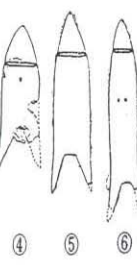


① 遺蹟 실측도



② 출토유물

圖 10 月城路 나-13號墳

	短頸壺	長頸壺	주머니壺	鐵 鎚	出土遺蹟		
二 一 期					① 朝陽洞 5號墳 ② 茶戶里 12號墳	土 城 木 槨 墓 段 階	一 期
二 二 期					①~③ 朝陽洞 38號墳 ④ 大也里 12號住居址 ⑤ 茶戶里 11號墳		二 一 一 期
二 三 期					① 池內洞 ②③ 密陽 內二洞		二 一 一 二期
三 一 期					①~③ 密陽 內二洞		二 一 一 三期
三 二 期					①~③ 良洞里 2號墳 ④~⑥ 良洞里 7號墳		二 一 一 四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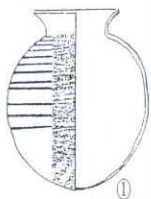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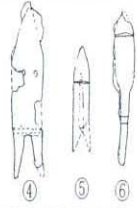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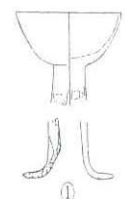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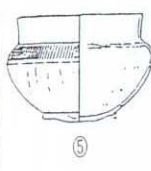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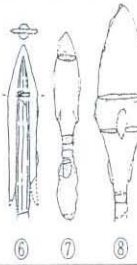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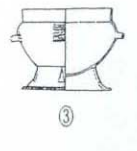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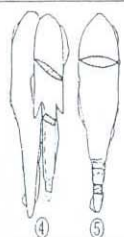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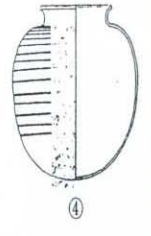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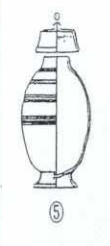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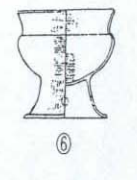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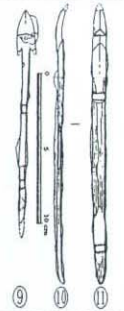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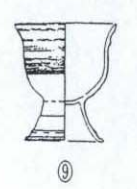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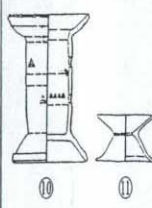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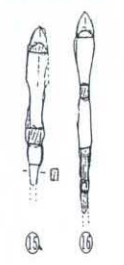
高	杯	短頸壺	長頸壺	爐形土器	器 臺	器	臺附直口壺	鐵 鎚	出土遺蹟
									①⑤ 良洞里 6號墳 ② 朝陽洞 3號墳 ③ 老園洞 3號墳 ④⑥ 老園洞 34號墳
									① 月城塚字 ②③④⑤ 陰城洞 土墳墓 ⑥ 老園洞 33號墳 ⑦⑧ 老園洞 31號墳
									①~③ 禮安里 160號墳 ④⑤ 禮安里 150號墳
									①⑦⑧⑨⑩⑪ 玉田 49號墳 ②④ 玉田 6號墳 ③ 禮安里 11號墳 ⑤⑥ 禮安里 74號墳
									① 玉田 54號墳 ②④ 玉田 27號墳 ③⑤ 禮安里 31號墳 ④⑦⑨⑩⑪ 福泉洞 10號墳 ⑤ 皇吾洞遺蹟 ⑥⑧ 月城路 가-30號墳 ④ ⑤ 玉田 40號墳

圖 11-12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土器 編年表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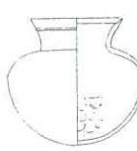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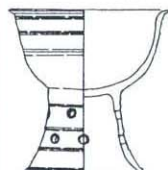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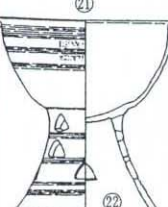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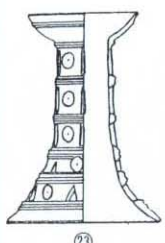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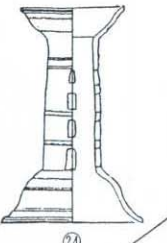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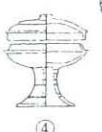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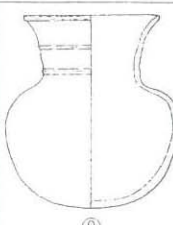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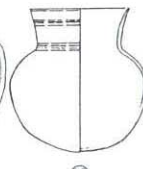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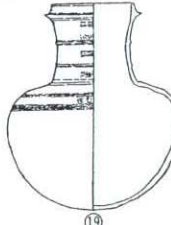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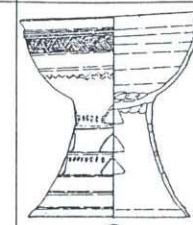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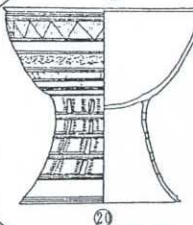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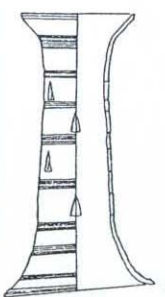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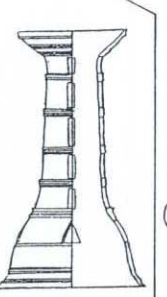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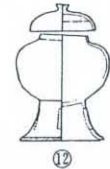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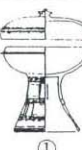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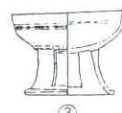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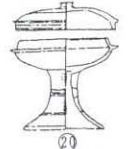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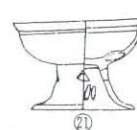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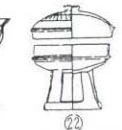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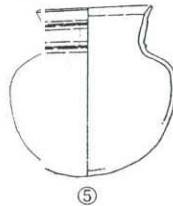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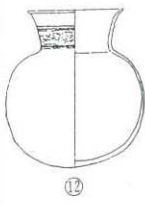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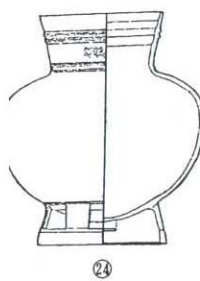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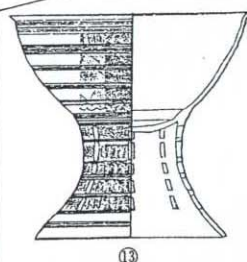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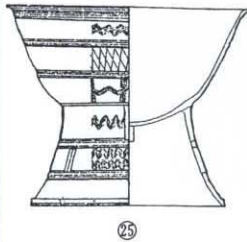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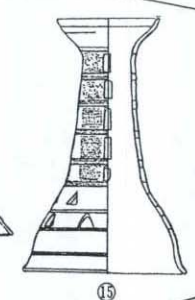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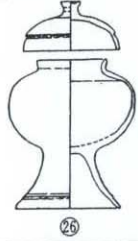
高	杯	頸 杯	甗形土器	長	頸 壺	鉢形土器	器 臺	臺附直口壺	鐵 鏃	出 土 遺 蹟
 ①  ②  ⑩  ⑪	 ③  ④  ⑭  ⑮	 ⑥	 ⑱	 ⑦  ⑧  ⑨  ⑲  ⑳	 ㉑  ㉒	 ㉓  ㉔		 ②⑤  ②⑥	①②⑤⑦⑧⑨⑫⑮ 皇南洞 109號墳 3, 4柳 ③④⑥ 禮安里 86號墳 ⑩⑪⑬⑭⑯⑰ 味都5區 1號墳 ⑫⑬⑭⑯⑰⑲ 禮安里 117號墳 ⑮⑲ 禮安里 138號墳 ㉔ 月城路 가-8號墳	
 ①  ②  ⑬	 ③  ④  ⑤  ⑥  ⑭  ⑮  ⑯	 ⑦  ⑰	 ⑧  ⑱	 ⑨  ⑩  ⑲	 ⑪  ㉒	 ㉓  ㉔	 ⑫  ㉓  ㉔	 ②⑤  ②⑥  ②⑦	①②⑧ 味都 5區 6號墳 ③⑦⑩ 月城路 가-6號墳 ④⑤⑥⑨⑪⑫ 華明洞 2號墳 ⑬⑭⑮ 福泉洞 25, 26號墳 ⑯~㉑ 福泉洞 31號墳 ㉑⑲~㉗ 華明洞 7號墳	
 ①  ⑥  ⑦	 ②  ③  ⑧  ⑨  ⑩  ⑪  ㉑  ㉒  ㉓	 ④  ㉓  ㉗		 ⑤  ⑫  ㉔	 ⑬  ㉕	 ⑭  ⑮  ㉖		 ②⑥  ②⑦  ②⑧  ②⑨	①②③⑤ 月城路 가-13號墳 ④ 月城路 가 5號墳 ⑥⑦⑯~⑲ 皇南洞 110號墳 ⑧~⑬ 福泉洞 21, 22號墳 ㉑~㉕ 福泉洞 39號墳 ㉗ 月城路 나-13號墳	

圖 13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土器 編年表②

參 考 文 獻

< 史料 >

- 김부식, 『삼국사기』, 李丙燾譯註, 을유문화사, 1980
일연, 『삼국유사』, 李丙燾譯註, 廣曹出版社, 1980
진수,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韓條

<報告書>

-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사라리 유적 I』, 1999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사라리 유적 II』, 2001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구어리 고분군 I』, 2002
영남문화재연구원, 『경부고속철도 경주 덕천리 건설구간내 경주 덕천리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현장설명회자료 36, 2005

<單行本>

- 김정배, 『한국 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선석열, 『신라 국가성립과정 연구』, 혜안, 2001
이성주, 『신라, 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학연문화사, 1998
이종선, 『고신라 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00
이종욱, 『신라 국가형성사 연구』, 일조각, 1982
이현혜, 『삼한사회 형성과정 연구』, 일조각, 1984
최몽룡,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편, 일조각, 1985
최병현, 『신라고분 연구』, 일지사, 1991

<論文>

- 강봉원, 「신라 적석목곽분 출현과 기마민족 이동 관련성의 비판적 재검토」,
『한국 상고사학보』 46, 2004
———, 「신라국가 형성시기의 재검토 - 영남지역 고분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고고학』, 주류성출판사, 2007
강인구, 「사로육촌과 국가의 성립단계 試考」, 「신라묘제의 변천과 기년문제」
『고고학으로 본 한국고대사』, 학연문화사, 1997
———, 「신라고분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補正」, 『고분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신라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계통」, 『한국사론』 7, 1981
권오영, 「삼한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권지영, 「변. 진한 사회의 발전양상에 대한 연구 -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
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대환, 「영남지방 적석목곽묘의 시공적 변천」, 『영남고고학보』 29, 2001
- 김영민, 「영남지역 삼한후기 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6
- , 「삼한후기 진한세력의 성장과정 연구」, 『신라문화』 23, 2004
- 김용성, 「토기에 의한 대구. 경산지역 고대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5, 1996
- 김창호, 「고신라 적석목곽분의 400년 상한설에 대한 의문」, 『영남고고학보』 4, 1987
- , 「신라 적석목곽묘의 연구성과와 과제」, 『신라문화』 23, 2004
- 민경옥, 「신라 적석목곽분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 안재호, 「진. 변한의 목관묘문화」, 『동아세아의 고고학』, 청림서점, 2000
- 이성주, 「울산 중산리유적 발굴을 통하여 본 신라묘제의 기원」, 『제1회 영남 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1992
- , 「신라식 목곽묘의 전개와 의의」,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1996
- ,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 울산 중산리유적과 다운동유적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 14, 1997
- , 「진. 변한지역 분묘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보』 24, 1999
- 이주현, 「도항리 목관묘와 安邪國」, 『문화재』 37, 2004
- 이재현, 「변. 진한 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청규,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 및 그 변천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13, 1982
- , 「지배층무덤의 변천에 대하여: 기원전 3세기 - 기원후 3세기」, 『인류학연구』 8,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 연구회, 1998
- , 「동북아시아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1999
- , 「세형동검시기 영남지역 묘제」,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5회 합동 고고학대회, 2002
- 이청규, 박자연, 「사로국 형성전후의 경주」, 『고문화』 55, 2000
- 이한상,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제 방식」,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 연구회, 2000
- , 「국가형성기 경주와 주변지역」, 한국 상고사학회, 2001
- 이희준, 「경주 월성로 가-13호 적석목곽묘에 대하여」, 『碩喁 윤용진교수 정년 퇴임 기념논총』, 1996
- , 「신라고총의 특성과 의의」, 『영남고고학보』 20, 1997
- , 「4-5세기 신라의 고고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이희준, 「대구지역 고대정치체제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보』 26, 2000
- ,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 변한사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 , 「신라 고분연구의 몇 가지 문제」, 『고고학 공개강좌』 제5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 주보돈, 「진.변한의 성립과 전개」, 『진. 변한사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 최병현, 「신라의 성장과 고분문화의 전개」, 『한국고대사 연구』 4, 1991
- ,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재론」, 『송실史學』 32, 송실대학교 史學會, 1998
- 최종규, 「도질토기 성립前夜와 전개」, 『한국고고학보』 12, 1982
- ,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釜大史學』 9, 부산대학교 史學會, 1983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illa dynasty and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of tombs

Choi Myung-Soo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won)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in Silla dynasty and the transition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tombs.

Refer to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system of tombs in Silla dynasty simply, wooden coffin tomb is presumed the system of tombs transmitted by the immigrants of Wimanchosun(BC 2C末 - 1C 初) and this system of tombs continued till the transformation of wooden chamber tomb (AD 2C 後半).

Wooden coffin tomb was the core of the system of tombs in the early Saro chieftdom. In this period though the ruler of capital village did not controlled a ruler of the province village perfectly, He accomplished the role of an priest and political ruler together. Wooden chamber tomb is presumed the system of tombs transmitted by the immigrants in the northwest region (AD 2C 後半).

In this period Samhan have been changed, Saro chieftdom have been grewed the leader of Jinhan league. In this period the organization of society have been changed from individual and independent province village system to a powerful and unified capital village system on the based economic and military capacity.

In a such case of wooden coffin tomb and wooden chamber tomb,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of tombs is presumed related to the migration of the immigrants in the northwest region. In consideration the tradition and conservatism of the system of tombs, I think that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of tombs is a result of the continued cultural acceptance and internal development.

And I think that the fixing process of the system of tombs was accomplished by the harmony of immigrants and native group. I think that the transmission of culture is

considered in two aspect. That is the aspect of diffusionism and that of evolutionism .
In consideration the gradual progress of the culture of tomb, I agree the theory of internal appearance on the origin of wooden chamber with stone mound.
I think that the appearance of wooden chamber with stone mound was cultural criterion that Silla dynasty had been developing the ancient kingdom.